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3년 2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 한·일 현대 소설 교육 비교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수영

# 한·일 현대 소설 교육 비교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of Modern  
Novel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Middle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s.

2023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수영

# 한·일 현대 소설 교육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혜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수 영

김수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희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영 인

2022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차

<b>I. 서론</b>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	4
3. 연구 범위와 방법 .....	8
<b>II.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비교</b> .....	13
1.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 .....	13
2. 중학교 교과 편제와 배당 기준 .....	19
<b>III. 한·일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b> .....	24
1. 국어과 교육 목표 .....	24
2. 국어과 영역 구분 .....	33
3. 국어과 문학 영역의 구성과 성취기준 .....	36
<b>IV. 한·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교육 비교</b> .....	49
1. 교과서 단원 구성과 체제 .....	49
(1) 교과서 단원 구성 .....	49
(2) 교과서 대단원 체제 .....	57
(3) 현대 소설 단원 체제 .....	62
2. 현대 소설 단원 체제 .....	69
3.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	76

V. 결론 ..... 92

참고문헌 ..... 96

ABSTRACT ..... 99

## 표 목차

<표-1> 한·일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선행 논문 .....	4
<표-2> 한·일 교육과정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황 .....	8
<표-3>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종류와 도쿄도 기준 채택률 .....	10
<표-4>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자료 .....	10
<표-5>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현황 .....	13
<표-6> 한국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 .....	20
<표-7> 일본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 .....	20
<표-8> 한국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 .....	24
<표-9>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 .....	25
<표-10>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 .....	27
<표-11> 일본 역대 교육과정 국어과의 목표 .....	28
<표-12> 일본 중학교 국어과 학년의 목표 .....	31
<표-13> 한·일 국어과 영역 구분 .....	33
<표-14> 한국 중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 체계와 내용 .....	36
<표-15> 한국 중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 성취기준 .....	38
<표-16> 일본 중학교 국어과 읽기 영역 체계와 내용 .....	40
<표-17> 한국 천재(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	49
<표-18>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	52
<표-19> 한국 천재(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단원 체제 .....	57
<표-20>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단원 체제 .....	59
<표-21> 한·일 중학교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체제 .....	62
<표-22> 한국 천재(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목록 .....	69



<표-23>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목록 .....	72
<표-24> 한국 현대 소설 단위 체제와 내용 .....	78
<표-25> 한국 현대 소설 단위 학습 활동 <목표학습> 내용 .....	80
<표-26> 한국 현대 소설 단위 학습 활동 <적용학습·실천학습> 내용 .....	82
<표-27> 일본 현대 소설 단위 체제와 내용 .....	84
<표-28> 일본 현대 소설 단위 학습 활동 내용 .....	85

## 사진 목차

<사진-1>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영역 표시와 차례 .....	54
<사진-2>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노트 작성 지도 .....	55
<사진-3>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단원 도입 .....	60
<사진-4>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1년의 학습 되돌아보기’ .....	61
<사진-5>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준비학습 .....	63
<사진-6>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준비학습 .....	63
<사진-7>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본 학습 .....	64
<사진-8>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본 학습 .....	65
<사진-9>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정리 학습 .....	66
<사진-10>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정리 학습 .....	67
<사진-11>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	76
<사진-12>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	77

## 국문 초록

### 한·일 현대 소설 교육 비교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현대 소설 교육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 현대 소설 교육의 현황과 위상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변혁적 사회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끊임없는 해결 과제를 안고 살아간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며, 그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나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다. 나와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소설은 인간의 다양한 삶을 담아놓은 집약체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인간과 사회를 통찰하여 삶을 정립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현대 소설 교육에서 현대 소설이 가진 가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육과정과 교과서이며,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가치관을 반영하여 최선의 교육을 위한 노력이 상시 이루어진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국가 간 교육 비교는 교육의 목표나 내용, 방법 등을 점검하는 데 있어 유효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내외적 유사성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과 현대 소설 교육방법 비교를 통해 한국 현대 소설 교육의 현황과 위상을 확인하였다.

II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현재 적용 중인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 변화에 대처 가능한 능력 육성을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으

로 두고 있었다. 특히 양국의 교육과정은 미지의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의 ‘삶’에 대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문학 교육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어과 교육은 국어과 하위 영역인 문학을 단독 영역으로 분리하여, 학습자가 문학이 가진 본질적 가치를 누리며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문학의 성취 기준 역시 문학의 본질과 요소, 감상 방법, 성찰 태도의 내용을 담아 수용과 생산 활동을 거치며 학습자의 성장을 이끄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일본의 국어과 교육은 문학을 사고력·판단력·표현력을 위한 언어활동의 일부로 보고 읽기 영역에 포함하여, 문학 요소를 이용한 분석과 해석 과정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문학의 성취 기준은 분석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분석을 위한 소설의 형식 요소를 배치해 학습자가 이해, 표현, 소통의 자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Ⅳ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교육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과 체제, 현대 소설 단원 제재,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앞 장에서 확인한 문학 교육에 대한 시각차가 현대 소설 교육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어과 하위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하나의 대단원 안에 두 개의 소단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었다. 두 개의 소단원 학습 종료에도 심화 학습을 위한 활동과 공동체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단원의 도입과 정리도 충실하게 구성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국어과 하위 영역 내용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단원에 여러 개 영역을 담고 있었으며, 정보와 독서의 경우 별도의 단원으로도 구성하고 있었다. 대단원에 여러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과 같이 심화 학습이나 활동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으며, 도입 역시 간소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리는 대단원별 정리가 아닌 마지막 대단원에서 한 학년의 국어 학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 소설 단원 체제 역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준비학습과 정리학습이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현대 소설 단원 제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학습자 현실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었으며,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의 접근, 교과서용 현대 소설 등 한국 현대 소설 제제에 참고점이 될 수 있었다. 한국의 현대 소설 단원의 학습활동은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과 연결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 내면의 성장과 가치관,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현대 소설 단원의 학습 활동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한 내용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판단력, 견해 형성, 표현력과 소통 능력을 증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현대 소설 교육 비교를 해 본 결과, 양국은 현대 소설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 소설로부터 얻는 가치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여 현대 소설 교육의 목표와 방법이 달랐다. 이런 차이를 통해 한국 현대 소설 교육의 현황과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요어: 한·일, 현대 소설, 교육과정, 교육 목표, 단원 체제, 제제, 학습 활동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현대 소설 교육이 학습자의 실제 삶에 주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현대 소설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가 어떤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과 교육 조건이 유사한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넓은 시각에서 한국 현대 소설 교육의 위상과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현재 우리는 변혁적인 4차 산업 시대의 도래, 돌발적인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유례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명현한 답을 내기 어려운 각 분야의 현상들은 앞으로 더 빈발하게 다종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적절한 대응과 대처의 주체는 전문 분야나 특정 학문의 전문가로만 한정할 수 없다. 일상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진정 가능한 다채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 함양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문학이며, 우리의 삶을 구현한 현대 소설이 큰 축을 담당할 수 있고 본다.

“문학 교육은 문학 안에서 문학과 더불어 즐기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현실을 상상력으로 초월하여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문화의 교육이다.”<sup>1)</sup> 문학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 독자적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떤 사고를 하고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가능하다. 문학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은 유연해지고 다각화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신한 해결 방법과 대안

---

1) 구인환 등(2012), 『문학교육론』, 삼지원, p.3.

을 도출해낼 수 있다. 문학 교육은 학습자에게 삶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며 체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분야이며 세계라 할 수 있다.

문학의 다양한 갈래 중 현대 소설은 우리에게 친숙한 실제적 삶의 모습과 언어 표현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접근이 용이한 언제나 열려 있는 보편적 문학 갈래로 기능한다. “소설은 다양한 삶의 국면들을 조직화하기 때문에 사물을 이해하는 주요 방식이며, 소설 교육은 소설 텍스트에 구축해놓은 경험들에 독자가 기꺼이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강력한 방식이기도 하다.”<sup>2)</sup> 현대 소설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실제적 인간 삶의 모습을 자세히 조망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치 판단의 적정기준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독자는 소설을 즐기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공감·비판의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 삶의 방식에 관한 결정과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현대 소설은 교과서에서 학습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알기 어려운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해석 방법, 문학적 표현 방법,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자로 거듭날 수 있다.”<sup>3)</sup> 현대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소설의 즐거움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능동적 독자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현대 소설이 가진 진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경로를 안내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교육 현장 곳곳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최선의 교육 내용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노력은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 현상이며, 교육과정

2) 윤영옥(2007), 『현대 소설의 문학 교육적 해석』, 역락, p.18.

3) 최미숙 등(2016),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아카데미』, p.349.

과 교과서 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한국 이외 국가의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교육 방법을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박치범(2015)<sup>4)</sup>은 문학 교육과정에 대해 당대 교육 공동체가 문학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의도, 신념 등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정일환(2017)<sup>5)</sup>은 교육의 국제 비교에 대해 자국의 교육 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문제를 넓은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 또는 세계적 시야에서 교육적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국과 다른 국가의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통해 각국이 지닌 현대 소설 교육의 지향점과 교육 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현대 소설 교육의 현상과 위상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 또한 비교 과정에서 결여점이나 풀리지 않는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단서나 실마리를 포착할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 인접 국가로서 교육 환경과 교육 내용의 유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아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기 적절하다. 단일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동일한 형태의 학제, 국가 주도의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검정 교과서 사용,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시각 등 내·외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 2020년 소학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1년 중학교, 2022년 고등학교에 연차 적용되었으며, 한국 역시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예고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현대 소설 교육 현황 비교를 통해 새로 개정될 한국의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에 부족하지만 일부 도움이 되고자 함을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밝힌다.

---

4) 박치범(201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내용 성취 기준의 서술어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학』, 48호, p.135.

5) 정일환(2017),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영역과 교육학」, 『비교 교육 연구』, 27호, p.8.



## 2. 선행 연구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국어 교과서에 관한 연구는 국어교육 이외에도 일본어 및 일본어 교육, 한국어 교육, 교육학, 문헌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주제로 접근하여 꾸준히 고찰되어 오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볼 선행 연구로는 최근 약 20년간의 국어 교육 전공 분야의 학위 논문 중, 중·고등 국어과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 제한하고자 한다.

<표-1> 한·일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선행 논문

순서	연구자	발표 연도	연구 주제	대상	한국 교육과정	일본 교육과정
1	노아름	2018	시	중등	2015 개정	2008 개정
2	주현희	2014	고등 비문학	고등	2007 개정	2008 개정
3	전유순	2009	문학 제재	중등	7차	1998 개정
4	김우태곤	2008	듣기·말하기	중등		
5	주정옥	2008	고전문학	중등		
6	방희경	2008	단원 구성	중등		
7	김영옥	2007	현대 소설 주제 의식	중등		
8	임세미	2004	국어 지식	중등		

노아름(2018)<sup>6)</sup>은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편제를 비교 분석한 후 양국의 중학교 1학년 교과서 1종을 선정하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비교하였다. 한국은 교육 목표를 교과서에 그대로 표기하여 일관성은 있으나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고전 시가 적게 수록된 점을 문제점

6) 노아름(2018), 「한·일 국어 교과서 비교연구-중학교 시 단원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으로 지적하였다.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위시하여 스스로 학습을 유도한 부분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은 교육 목표를 쉽게 풀어 교과서에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였고, 다양한 시대 속에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음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학습활동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사의 수준에 따른 수업의 질 차이를 예상하였다. 1학년에 한정된 연구 분석 범위는 중학교 3년 동안의 시교육의 위계성이나 학년별로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두 국가의 국어 교과서가 가진 장단점을 통해 보완책을 제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현희(2014)<sup>7)</sup>는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후,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국어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비문학 지문을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예술로 각각 분석하였다. 일본은 철학과 사상, 기본 사회문제, 생태계 환경, 예술 기초 지식 이해와 같이 보편적이고 원론적 내용을 담아 사물과 세계에 대한 사유를 통해 논리력과 사고력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반면 한국 교과서의 비문학 지문에는 특정 인물의 업적과 성취, 당대 이슈와 사회 현상을 다루고 있어 비평적 시각을 통한 판단력 기르기와 학습자의 진로와 꿈을 모색하는 등의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런 차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국어 교과서는 주력하고자 하는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전유순(2009)<sup>8)</sup>은 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체제를 분석한 다음 장르, 시대, 주제로 나누어 작품 분석을 하고, 학습 활동의 유형(지식형, 탐구형, 토의·토론형)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본 교과서에서 확인한 통합형 대단원 구성, 고전 작품의 다량 수록, 만화를 이용한 동기 유발, 학습 활동 질문 등의 특징을 한국 국어 교과서의 보완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당시 한국의 국어 교과서가 국

7) 주현희(2014), 「한·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연구 -비문학 지문의 체제 고찰」,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8) 전유순(2009),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 -문학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이라는 단일성을 띠었기에 다양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행 교과서 체제와 특성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유효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김우태곤(2008)<sup>9)</sup>은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 교육을 분석하여 지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문학 영역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도 살펴 볼 수 있다. 학생 집단의 설문 문항 중 국어과 영역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부분에서 한국 59.3%, 일본 44.1%로 문학 영역에 대한 흥미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음을 보여주었다. 교사 집단의 설문 문항 중 국어과 영역에서 교수가 어려운 영역에 대한 질문의 결과로 문학 영역이 한국 3.3%, 일본 4.8%로 교수자의 부담이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통해 문학 영역이 양국 국가의 학습자와 교사에게 부담 없이 친밀한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정옥(2008)<sup>10)</sup>은 양국 비교를 통해 고전 문학 교육의 위상을 점검하고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고전 문학 교육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 내용이 적거나 균형적이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고전 문학 교육이 가진 다양한 학습 체계를 참고하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국의 비교를 통해 국어과 특정 영역의 효과적 학습 체계를 제안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방희경(2008)<sup>11)</sup>은 한·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인지적·정의적 목표를 고루 편성하고 있고 기술의 차이일 뿐 수준별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학년별 학습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비슷한 교육관을 갖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비교에 대해서는 한국은 영역 분리형으로, 일본은 영역 통합형으로 구성되어

9) 김우태곤(2008), 「한·일 중학교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10) 주정옥(2008), 「한·일 중학교 고전문학 교육 비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11) 방희경(2008), 「한국과 일본의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있음을 분석한 후 일본 운영이 더 융통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영옥(2007)<sup>12)</sup>은 한·일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을 정리하여 작가 정보(국적, 출생 연도)를 제시한 후 현대 소설 주제 의식을 분석하였다. 양국의 공통 사상은 반전사상, 남녀의 사랑, 현대 문명 비판으로 정리하였고, 차이점으로는 일본이 역사 인식의 차, 개인 성장과 가족 의미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 성장이나 눈높이에 맞는 구성과 현대 소설 제재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임세미(2004)<sup>13)</sup>는 한·일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피고, 양국 초기 교육과정이 유사한 형식에서 출발하여 점차 독자적 특징을 보이는 형태로 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국어 지식 영역에 대해서는 한·일 문법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한국 국어 교과서가 일본 국어 교과서에 비해 비중과 학습 분량이 많아 재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에 대한 비교·분석을 다룬 선행 연구를 정리해본 결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국제 비교는 우리의 상태를 현시할 수 있고, 새로운 보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환경적 조건이나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인간 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교육의 구조를 이루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 놓인 국가 간의 교육 방식과 국어 교과서의 체계를 견주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결과와 제안은 개정과정에서 실제 반영, 조정되기도 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관련 주제에 대한 꾸준한 후속 연구와 개정과정의 변화에 대한 추적은 꼭 필요한 부분이며, 본 논문 역시 양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집어보는 작업을 통해 한국 국어과

---

12) 김영옥(2007), 「한·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의 주제 의식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13) 임세미(2004),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의 토대를 견고하게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한 급격히 변모하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공통 과제 속 새로운 개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과, 앞서 교육과정을 개정한 일본의 최신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현상 확인만이 아닌 학습자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논문의 구성은 선행 논문의 교육과정 및 국어 교과서 체제 분석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관심의 대상인 현대 소설 교육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행하여 양국의 현대 소설 교육의 위상을 확인하고, 한국 현대 소설교육의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현대 소설 교육 현황과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일본은 平成(헤이세이) 29, 30, 31년<sup>14)</sup>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교육과정의 명칭은 이후 편의상 2017 개정 교육과정으로 지칭한다.

<표-2> 한·일 교육과정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황

구분	한국	일본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종	9종	4종
출판사명	교학사 (남미영 외)	교육출판

14) 일본 교육과정의 연도 표기는 일본 연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平成(헤이세이) 29, 30, 31년은 2017년, 2018년, 2019년을 의미한다.

	금성출판사 (류수열 외) 동아출판 (이은영 외) 미래엔 (신유식 외) 비상교육 (김진수 외) 지학사 (이삼형 외) 창비 (이도영 외)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교육 (박영목 외)	도쿄서적 미즈무라 산세이도
교과서 구분	1학년 - 1학기, 2학기 2학년 - 1학기, 2학기 3학년 - 1학기, 2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황은 위의 표와 같다. 양국 모두 검정 교과서 체제로 한국은 8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9종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일본은 4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4종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 천재교육(노미숙 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1, 2, 3학년을, 일본은 미즈무라 출판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1, 2, 3학년을 선택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교과서 선정의 근거로는 한국의 경우 공식적인 교과서 채택률을 공시하고 있지 않지만, 천재교육 출판사의 공식 누리집에 천재교육 교과서가 중등 교과서 점유율 23%<sup>15)</sup>로 1위임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할 중학교 국어 교과서 출판사 채택률을 도쿄도 교육위원회 공식 누리집<sup>16)</sup>에 게시하고 있다. 이 중 도쿄도 공립 중학교 국어 교과서 채택률<sup>17)</sup>을 참고하여 압도적으

15) 천재교육 출판사 누리집 <https://www.chunjae.co.kr>

16) 도쿄도 교육위원회 누리집 <https://www.kyoiku.metro.tokyo.lg.jp>

17) 도쿄도 공립 중학교 국어 교과서 채택률

로 사용하고 있는 미즈무라 도서출판의 국어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표-4>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자료<sup>18)</sup>

주체 자료 종류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문부과학성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원문	『중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교과서와 더불어 중학교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분석 기반 자료로는 위와 같다. 한국은 교육부에서 발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일본은 문부과학성에서 발

<표-3>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종류와 도쿄도 기준 채택률

순서	출판사명	학년별 교과서명	채택 지구	채택률
1	미즈무라 도서출판	国語 1, 2, 3	46지구	85%
2	산세이도	現代の国語 1, 2, 3	4지구	7%
3	교육출판	伝え合う言葉 中学国語 1, 2, 3	3지구	6%
4	도쿄서적	新しい国語 1, 2, 3	1지구	2%

18) 한국 자료 출처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누리집 (www.ncic.go.kr)  
 일본 자료 출처 - 문부과학성 누리집 (www.mext.go.jp)

행한 201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을 분석 자료로 사용한다.

위와 같은 연구 대상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크게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 내용을 구현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분석을 통해 양국이 추구하는 인재상 및 교육 목표와 방향을 확인한다. 더불어 중학교 편제와 배당 기준을 통해 양국 교육과정 내에서의 국어과 위상을 확인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 국어과 영역 구분, 문학 영역의 구성과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양국 문학 교육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체제와 현대 소설 단원을 분석하여 양국 현대 소설 단원의 교육 방법과 내용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다. 현대 소설 단원 분석의 기준은 단원 체제, 제재 글, 학습 활동으로 한다. 넷째, 앞서 확인한 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 현대 소설 교육의 위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은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비교·분석한다. 1절에서는 양국의 중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확인한다. 교육과정을 추적하여 각국이 교육을 통해 양성하기 원하는 이상적 학습자상의 형태와 교육 목적을 확인한다. 2절에서는 중학교 편제와 배당기준을 통해 국어과의 비중을 알아보고, 국어과가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 주요 핵심 교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III장은 한·일 중학교 국어과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다. 1절에서는 앞장에서 도출한 전체 교육의 목표가 국어과 특성에 맞추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전 국어과 교육 목표와의 변화 양상도 확인해봄으로써 양국이 현재 추구하는 국어과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2절에서는 국어과 영역 구분 비교를 한다.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하는 국어과의 특성상 기본 영역 구분은 비슷하겠지만, 각 나라가 추구하는 교수 목적과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현대 소설이 포함된 문학 영역의 위치를 확인한다. 3절에서는 양국의 문학 영역 성취 기준을



비교하여 양국이 중학교 3년간 문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확인한다.

IV장에서는 한·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구성과 체제 및 현대 소설 단원 비교를 통해 현대 소설 교육의 실제 모습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양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대단원 체제, 현대 소설 단원 체제를 살펴 현대 소설 교육 실현을 위한 국어 교과서의 구조를 살핀다. 2절에서는 양국의 현대 소설 단원의 제재를 분석한다. 현대 소설 제재 글은 주제, 작품의 시대 배경, 중심인물, 작가를 포함한 작품 분석을 선행하고, 양국이 학습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을 파악한다. 이를 어떤 목표 설정과 과정을 이용해 전달하는지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현대 소설 제재 글이 교육적 기능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또한, 편집, 삽화, 정보 제공 등 학습 활동을 돕는 교육 내용도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현대 소설의 전반적 교육 방식과 내용을 확인한다.

V장에서는 전 과정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현대 소설 교육의 현황과 위상을 결론으로 정리하고 본 논문을 마무리한다.

## II.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 비교

### 1.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

한국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주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수시 개정 형식을 가진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형성된 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7차 교육과정까지 주기 개정의 형태를 유지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2018년부터 학년별 연차 적용되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이 주체가 되어 약 10년 정도의 갱신주기에 맞춰 개정하는 주기 개정의 형식을 가진다.<sup>19)</sup> ‘학습지도요령’이라는 교육과정 내용을 담은 문서가 형식적으로 공고화된 시점인 1958년을 기점으로 하여 현 교육과정은 7번째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교육과정 명칭은 한국과 같이 개정연도의 연호를 이용하여 平成(헤이세이) 29.30 개정 교육과정으로 부른다. 현재 적용 중인 교육과정은 2017 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 1학년 기준 2021년부터 연차 적용되었다.

<표-5>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현황

국가	한국 <sup>20)</sup>	일본 <sup>21)</sup>
개정연도	2015 개정 교육과정	2017 개정 교육과정
양성 목표	‘창의 융합형 인재’	‘살아가는 힘’

19) 주기 개정 과정 중 일부 개정이 두 차례 이루어짐. 2003년 일부 개정(平成 15年 一部改正), 2015년 일부 개정(平成 27年 一部改正).

	‘핵심역량’	‘자질·능력의 확실한 육성’
교육과정의 지향 능력	(1) 자기관리 역량 (2) 지식정보처리 역량 (3) 창의적 사고 역량 (4) 심미적 감성 역량 (5) 의사소통 역량 (6) 공동체 역량	(1) 지식 및 기능 (2)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3)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

20)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p.34~p.37.

21)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문부과학성, p3.

「살아가는 힘」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육과정 전체를 통해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생생하게 작용하는 「지식·기능」의 습득)」, 나. 「이해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미지의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육성)」, 다. 「어떻게 사회·세계와 관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인가(배움을 인생이나 사회에 활용하도록 하는 「배움을 향한 힘·인간성 등」의 함양)의 세 축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각 교과 등의 목표나 내용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기둥에 근거한 재정리를 도모하도록 제언이 이루어졌다.

「生きる力」をより具体化し, 教育課程全体を通して育成を目指す資質・能力を, ア. 「何を理解しているか, 何ができるか(生きて働く 「知識・技能」の習得)」, イ. 「理解していること・できることをどう使うか(未知の状況にも対応できる 「思考力・判断力・表現力等」の育成)」, ウ 「どのように社会・世界と関わり, よりよい人生を送るか(学びを人生や社会に生かそうとする 「学びに向かう力・人間性等」の涵養)の三つの柱に整理するとともに, 各教科等の目標や内容についても, この三つの柱に基づく再整理を図るよう提言がなされた。

한국의 교육과정은 총론 첫머리에 교육 이념과 목적, 추구하는 인간상<sup>22)</sup>을 기술하고 있다. 교육 이념과 목적은 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의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동일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가 건국이념과 국가 정치사상을 문두와 문미에 배치하여 한국의 정체성이 교육의 기반이 됨을 밝히며, 인간으로 품격과 주체적 생활 능력을 지닌 인류 보편 가치에 기여 가능한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이념과 목적을 반영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는데 교육과정 개정마다 형식과 내용이 일부 수정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네 가지 형태의 인간상을 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학습자 개인 스스로의 발견을 돕고 이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방법을 구상해낼 수 있는 창의적 자질 기르기를 강조하되 자국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인류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개성적 요소 발견과 동시에 다양한 주변 환경들과 교섭 활동을 통해 본인의 일관적 확신상태를 뚜렷하게 자각하며 전향적 체험과 경험을 쌓아

22)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3]), 교육부, p.3.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야 하는 존재이다. 긍정적 자기 존중과 타자 존중이 형성된 인간은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경쟁 속에서도 주체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로 다양한 대상에 대해 포용적이고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이 건설적인 문화 창출하고, 세계 문화 발전이라는 이상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 교육 목표와 인간상 위에 시대적 요구가 추가되어 새로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창의 융합형 인재’라 명명하고 양성을 위해 여섯 가지의 ‘핵심역량’<sup>23)</sup>을 제시하였다. 자주적인 사람을 위해 ‘자기관리 역량’을, 창의적인 사람을 위해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교양 있는 사람을 위해 ‘심미적 감성 역량’을, 더불어 사는 사람을 위해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실현을 위해 ‘핵심역량’을 학교 교육에 일관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배경을 총론 해설서<sup>24)</sup>에서 확인해보면 미래사회의 변화 대응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미래사회가 융합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임을 예측하여 다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문·이과 분리 교육으로 시대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통합 교육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 개정의 동력을 이끌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다분야 교육 강조에 따른 획일적 교육 경험은 경계하고 있다.<sup>25)</sup> 학습자 개인의 ‘꿈과 끼’의 발산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위해 중학교는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고등학교는 과목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해 두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

23)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3]), 교육부. p.3.

24)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p. 18.

25)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p. 22.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학습자의 ‘삶’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추구하는 인간상의 가)항에는 ‘삶’을 개척의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목표의 1항<sup>26)</sup>에는 적극적 방향 탐색 대상으로 ‘삶’을 언급하고 있다. 개척이란 새로운 영역이나 대상에 대해 길을 닦아 나아간다는 뜻이다. 학습자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확정하고 진취적 행위가 필요함을 교육 논의 대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각 과는 학습자가 자신의 실제 삶을 인식하고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법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앞으로의 삶에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복한 삶과 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살아가는 힘 (生きる力)><sup>27)</sup>을 지닌 학습자를 전체 교육과정의 육성 목표로 삼고 있다. 학습자에게 실질적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일본 교육의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이어져왔다. 1998 교육과정에서 처음 용어가 등장하여 보충·수정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998 교육과정 시기는 급속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자 능력을 위해 생활 속 자율적 탐색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목표로 일명 ‘여유(ゆとり)’ 교육과정이 시행되었다. 암기식의 학습자 부담이 컸던 이전 교육과는 달리 총 수업시간<sup>28)</sup>을 줄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종합적인 학습시간이라는 체험 중심의 활동시간을 포함하였다. “기초·기본을 확실히 익히게 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초학력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 발생으로 교육과정은 대대적 수정을 하게 되었다. 2008 교육과정 개정 당시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 해설<sup>29)</sup>에서는 국제 협력 개발기구(OECD)의

26)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3]), 교육부, p.5.

(중학교 교육 목표 1항)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27)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문부과학성, p. 19.

28)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학년 당 수업시간은 1.015시간, 일본 1998 개정 교육과정 수업시간은 학년 당 980시간이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자국의 학생들이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묻는 독해력과 서술식 문제,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과제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08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살아가는 힘 (生きる力)>을 교육 전면에 세우고 교육과정 기본 틀을 ‘자질·능력의 확실한 육성’을 기준 역점으로 정하였다. 역점 목표 실현을 위해 ‘(1) 지식 및 기능’, ‘(2)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두 개의 하위 조항을 정하고 수업 시간의 양을 늘렸다. 현재 적용 중인 2017 개정 교육과정에는 기존 두 개의 항목에 새로운 항목인 ‘(3)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을 추가하여 총 세 항목의 요소가 교육과정 전체 과에 기본 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세 차례 교육과정 개정의 부침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 (生きる力)>이라는 교육 목표만은 일관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특정할 수 없는 미래 사회 모습이지만 학습자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교육의 중심에서 작동하고 있다.

일본의 2017 개정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 총칙’에 제시된 개정 경위를<sup>30)</sup> 살펴보면, 현 학습자가 살아갈 미래를 ‘어려운 도전의 시대(厳しい挑戦の時代)’로 표현하고 있다. 기술 혁신이나 고령화 사회와 같은 새로운 현상들이 유발할 사회 구조와 고용환경의 변화 등 다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능력 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아가는 힘을 가진 인재란 세계와 사회 속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력, 정보 재구성 능력, 타인과의 협력적 자세 등 사회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라 할 수 있다.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은 미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관계에 대해 궁리하여 인식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논리적 과정을 통해 분별 판정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자질을 의미한다. 이런 판단 능력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이용

29)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문부과학성, p. 1.

30)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문부과학성, p. 1.

하여 문제에 대책을 세우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은 ‘(1) 지식 및 기능’, ‘(2)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의미한다.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위해 배움에 대한 적극적 자세와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교육 목표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대한 실질적 개척의 힘을 강조하며 실용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 목표와 방향을 정리해본 결과 양국 모두 시대 변화에 적응 대처할 수 있는 인재의 자질을 특정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은 ‘창의 융합’, 일본은 ‘살아가는 힘’을 길러 학습자가 양질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자의 ‘삶’에 대한 공통적인 주목은 국가 이념이나 문화를 뛰어넘어 교육의 최종적 방향이 비슷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표 도달을 위한 각국의 특색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한 비교는 상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앞둔 한국에게는 고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2. 중학교 교과 편제와 배당 기준

해당 절은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를 이용하여 각국의 교육 내용 편성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학교의 연간 수업 기간, 1단위 수업 시간과 교과 편제의 구성을 비교한다. 이후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비율을 통해 타 교과 대비 국어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고 양국의 중심 교과로의 위상을 살펴 비교한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총론이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수업 시간의 경우 한국은 중학교 3개 학년을 통합한 시간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은 학년별 수업 시간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과 시간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일본 기준표에 <합> 항목을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표-6> 한국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sup>31)</sup>

구분		수업 시간 (1.2.3 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정보	680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170
	소계	3,060
창의적 체험 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 숫자 기본 단위: 시간

<표-7> 일본 중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표<sup>32)</sup>

구분		수업 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합
교과	국어	140	140	105	385
	사회	105	105	140	350
	수학	140	105	140	385

31)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3]), 교육부, p.10.

32)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문부과학성, p.14.

	이과	105	140	140	385
	음악	45	35	35	115
	미술	45	35	35	115
	보건 체육	105	105	105	315
	기술·가정	70	70	35	175
	외국어	140	140	140	420
	소계				2,645
	특별 교과 도덕 수업 시수	35	35	35	105
	종합적 학습 시간의 수업 시수	70	70	70	210
	특별 활동 수업 시수	35	35	35	105
	총 수업 시수	1,015	1,015	1,015	3,045

\* 숫자 기본 단위: 시간

중학교의 수업 기간은 한국은 연간 34주 기준으로 하여 1단위 수업시간을 50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연간 35주 이상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며 1단위 수업시간은 45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 편제는 한국의 경우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눈다. 교과에는 선택 과목인 한문, 보건, 진로와 직업을 포함하여 1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과 같은 체험적 활동으로 조직되어 있다.<sup>33)</sup> 일본 중학교 편제는 교과, 특별 교과 도덕, 포괄적 학습 시간, 특별 활동 수업으로 나뉜다. 교과는 9과목이며 도덕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특별교과<sup>34)</sup>로 지정되어 있다. 종합적 학습시간은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33)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 p.63.

34) 일본의 도덕은 해당 과목의 전문 교원 제도가 없어 학교 내의 교원 중 전담 교사를 지정해 수업을 진행한다.

같은 개념의 체험적 활동에 해당하며, 사회 체험인 자연 체험, 직장 체험, 봉사 활동, 체험 활동인 만들기, 제조 생산 활동, 학습 활동인 관찰·실험, 견학, 조사, 발표, 토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35)</sup>

중학교의 과목 배당 시수는 한국은 총 수업 시간 3.366시간 중 교과 시간이 3.060시간이며, 일본은 총 수업 시간 3.045시간 중 교과 시간이 2.645시간이다. 교과목의 총 시간당 개별 과목 비율 상위 네 과목을 순서로 나열하면, 한국은 국어 442시간(14.44%), 수학 374시간(12.22%), 과학 374시간(12.22%), 영어 340시간(11.11%) 순이었고, 일본은 영어 420시간(15.88%), 국어 385시간(14.56%), 과학 385시간(14.56%), 수학 385시간(14.56%) 순서였다.

위 내용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 중학교의 단위 수업 시간과 연간 수업 기간은 한국 50분, 34주이며 일본은 45분 35주로 비슷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연간 총 수업 시수는 한국 3.366시간, 일본 3.045시간, 그리고 총 수업 시수 당 교과 시간 비율 한국이 90.90%, 일본이 86.86%로 한국이 일본보다 총 수업 시간과 교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과목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교과목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교과 과목당 수업 시수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은 1. 국어 2.

35)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문부과학성, p.68.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 있어서는 자연 체험이나 직장 체험 활동, 자원 봉사 활동 등의 사회 체험, 만들기, 생산 활동 등의 체험 활동, 관찰·실험, 견학이나 조사, 발표나 토론 등의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그 때에는 체험 활동을 탐구적인 학습의 과정에 적절히 자리매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総合的な学習の時間においては、自然体験や職場体験活動、ボランティア活動などの社会体験、ものづくり、生産活動などの体験活動、観察・実験、見学や調査、発表や討論などの学習活動を積極的に取り入れることの必要性を明らかにし、その際は、体験活動を探究的な学習の過程に適切に位置付けることを求めている。

수학, 과학 3. 영어 순으로 국어 수업시간이 많았으며, 일본은 1. 영어 2. 국어, 수학, 과학의 순으로 영어 과목의 수업시간이 많았다. 교과 시간당 국어 수업 시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국어는 14.44%, 일본의 국어는 14.56%로 차이는 없으나 일본의 영어 수업 시간 비율이 국어 수업 시간 비율을 앞지른 15.88%라는 점이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과 일본의 ‘종합적 학습 시간’은 서로 유사한 체험 형태의 활동으로 양국 모두 교과 이외 시간에 배치하여 학습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과 편제와 배당 기준을 통해 양국 모두 국어과가 중심 교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한·일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해당 장은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반적 모습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 목표를 비교 분석한다. 양국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더욱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각국의 현행 국어과 교육 목표와 직전 국어과 목표를 비교하며 변화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2절에서는 양국의 국어과 영역 내에서 문학 영역의 위상을 확인해 본다. 3절에서는 양국의 중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의 구성과 성취기준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양국이 문학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하는 지향점을 알고자 한다.

#### 1. 국어과 교육 목표

한국의 국어과 교육 목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와 직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sup>36)</sup>는 아래의 표

36) 한국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3.

<표-8> 한국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와 같다.

<표-9>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sup>37)</sup>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목표는 전문과 세 향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의 맨 앞부분은 국어과 하위 영역인 이해·표현 활동(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문법, 문학에 대한 이해가 국어과 교육의 출발임을 밝힌다. 이해의 성격은 ‘총체적 이해’에서 ‘본질적 이해’로 변경 표기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목표가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는 영역별 고유한 특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효과적 국어사용’에서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사용’으로 전환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학습자의 고유한 특질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교과 과정이라는 교육제도 안에 놓여 있지만, 다양한 환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의 개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일률적 집단의 사고 형태와 표현이 제약되지 않고 학습자가 개체로서의 독립적 성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다만, 국어과는 원활하고 품위 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본적 소양 범주에 대한 틀을 제

37)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교육부. p.4.

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성 발현을 유도한다.

세부목표를 보면, 문학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 지식’에서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문학을 단순 지식만으로 파악하는 대상이 아닌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겁게 누려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문학교육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교육은 문학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 요소의 지식만이 아닌 문학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만끽하는 방법으로서의 지식을 포함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수용과 생산’에 대해서는 ‘비판적 창의적 수용 생산’에서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으로 구체화하여 수용·생산 단계의 순서와 방법을 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판적 이해로 넘어가는 수용의 단계를 밝힌다. 생산 역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효과를 가진 내용의 생산으로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국어 생활의 내용은 ‘능동적 국어 생활’에서 ‘주체적 국어 생활’로 단어가 교체되었다. ‘능동’은 스스로 적극성을 띤 동작을 가리키며, 교과 학습을 통해 쌓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천하려는 행위와 연결된다. ‘주체’는 자기 주도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를 자신에게 알맞은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위 내용을 통해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목표는 국어과의 하위 범주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개별 영역이 가진 본질적 가치 전달을 교과학습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 중 문학은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고유적 성질을 가진다. 문학은 즐거움을 동반한 향유의 대상으로 문학의 교육 방식을 통해 학습자는 문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식은 수용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수반하며 일정한 과정과 목적을 가지는데, 학습자는 국어교육을 통해 내부적 외부적 다양한 지식과 소통의 경험을 쌓고 생활 속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

다. 모든 국어 활동의 중심에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며, 본인이 가진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 국어교육의 목표와 방향이다.

일본 국어과는 소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급별 국어과 교육 목표와 중학교의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의 학년별 국어과 교육 목표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2017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10>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sup>38)</sup>

<p>말을 통해 견해·생각을 활성화시키고, 언어활동을 통해, 국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자질·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1) 사회생활에 필요한 국어에 대해서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2) 사회생활에 있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전하는 힘을 높여,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운다.</p> <p>(3) 언어가 가지는 가치를 인식하는 동시에,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와 관련되어, 국어를 존중하고 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태도를 기른다.</p>
--

일본의 현행 국어과 교육 목표는 한국 국어과 목표 형식과 동일한 형태인 하나의 전문과 세 항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2017 개정 교육과

38)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문부과학성. p.11.

<p>言葉による見方・考え方を働かせ、言語活動を通して、国語で正確に理解し適切に表現する資質・能力を次のとおり育成することを目指す。</p> <p>(1) 社会生活に必要な国語について、その特質を理解し適切に使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p> <p>(2) 社会生活における人との関わりの中で伝え合う力を高め、思考力や想像力を養う。</p> <p>(3) 言葉がもつ価値を認識するとともに、言語感覚を豊かにし、我が国の言語文化に関わり、国語を尊重してその能力の向上を図る態度を養う。</p>
--



정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전 일본 국어과 목표<sup>39)</sup>들과 견주어보면 형식상, 내용상의 큰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식상 변화는 전문 하나의 형태로 이어져 왔던 기조가 새로운 교육과정의 육성 목표를 반영하여 세분되었다. 전문은 교육 전체 목표인 ‘자질·능력의 확실한 육성’을 나타내며, 세부목표 (1)항은 ‘지식 및 기능’을 (2)항은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39)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학습지도요령 일람.  
<https://erid.nier.go.jp/guideline.html>

<표-11> 일본 역대 교육과정 국어과의 목표

1989 개정 교육과정 (平成 원년)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国語を正確に理解し適切に表現する能力を高めるとともに、思考力や想像力を養い言語感覚を豊かにし、国語に対する認識を深め国語を尊重する態度を育てる。
1998 개정 교육과정 (平成 10년)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여, 서로 전달하는 힘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国語を適切に表現し正確に理解する能力を育成し、伝え合う力を高めるとともに、思考力や想像力を養い言語感覚を豊かにし、国語に対する認識を深め国語を尊重する態度を育てる。
2008 개정 교육과정 (平成 20년)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육성하여, 서로 전달하는 힘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력과 상상력을 길러 언어 감각을 풍부하게 하고, 국어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여 국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国語を適切に表現し正確に理解する能力を育成し、伝え合う力を高めるとともに、思考力や想像力を養い言語感覚を豊かにし、国語に対する認識を深め国語を尊重する態度を育てる。

을 (3) 항은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을 표현하였다. 중학교 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세 부류의 능력이 각 과목의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 있으며 일관적 흐름으로 일본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내용상 변화로는, 2008 개정 교육 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에서 ‘국어를 적절히 표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육성’이라는 표현이 2017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 목표 전문에서는 ‘국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자질·능력 육성’으로 변경되었다. 전자는 ‘국어’라는 텍스트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한 언어 구사를 위한 이해와 표현 활동을 활용하는 한정적 의미였다면, 후자는 학습자가 놓인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개념까지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국어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질 육성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언어 환경은 ‘가나’라는 일본 고유 문자와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특성상 각 학년 급별 상용한자를 지정하고 국어과가 그 교육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특질로 인해 중학교 급의 국어과 교육 목표이지만 자국어에 대한 기본 습득 강조의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201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국어의 목표가 단순 언어 기능성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습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의 자질 배양이란 점에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2017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목표 전문에 추가된 ‘말을 통해 견해·생각을 활성화 시키고’라는 표현은 국어과가 다루지 않는 다른 분야의 이론이나 관점이라도 말에 관한 탐구 자세와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는 적극적 태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생 영역의 과생이 다양화되는 환경 속에서 국어과 역시 다양한 관련어나 개념에 빈번히 노출된다는 사실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어과의 자세임을 밝힌다.

일본 국어과에 처음 등장한 세부목표에는 ‘사회생활’, ‘서로 전하는 힘(소통)’ ‘언어가 가지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국어교육의 최종목표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국어 능력 습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폈던 개정배경과 관련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말의 이해와 표현, 소통의 능력을 길러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사회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에 역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중학교 국어과 전체 목표와 함께 각 학년별 ‘국어과 학년의 목표’<sup>40)</sup>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확인한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과 목표를 구체화, 단계화하여 학년에 따라 내용을 배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모습은 다음 장의 표

40)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문부과학성. p.15.

	第1学年	第2学年	第3学年
(1) 知識及び 技能	(1) 社会生活に必要な国語の知識や技能を身に付けるとともに、我が国の言語文化に親しんだり理解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		
(2) 思考力 判断力 表現力 等	(2) 筋道立てて考える力や豊かに感じたり想像したりする力を養い、日常生活における人との関わりの中で伝え合う力を高め、自分の思いや考えを確かなものにするようにする。	(2) 論理的に考える力や共感したり想像したりする力を養い、社会生活における人との関わりの中で伝え合う力を高め、自分の思いや考えを広げたり深め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	(2) 論理的に考える力や深く共感したり豊かに想像したりする力を養い、社会生活における人との関わりの中で伝え合う力を高め、自分の思いや考えを広げたり深め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
(3) 学びに 向かう力 人間性, 等	(3) 言葉がもつ価値に気付くとともに、進んで読書をし、我が国の言語文化を大切にしてい、思いや考えを伝え合おうとする態度を養う。	(3) 言葉がもつ価値を認識するとともに、読書を生活に役立て、我が国の言語文化を大切にしてい、思いや考えを伝え合おうとする態度を養う。	(3) 言葉がもつ価値を認識するとともに、読書を通して自己を向上させ、我が国の言語文化に関わり、思いや考えを伝え合おうとする態度を養う。

와 같다.

<표-12> 일본 중학교 국어과 학년의 목표

	1학년	2학년	3학년
(1) 지식과 기능	(1) 사회생활에 필요한 국어의 지식이나 기능을 익히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친숙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2) 조리 있게 사고하는 힘과 풍부하게 느끼거나 상상하는 힘을 길러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전하는 힘을 높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2)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이나 공감하거나 상상하거나 하는 힘을 길러,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전하는 힘을 높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넓히거나 깊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과 깊이 공감하거나 풍부하게 상상하거나 하는 힘을 길러, 사회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전하는 힘을 높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넓히거나 깊게 할 수 있도록 한다.
(3)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	(3) 말이 지니는 가치를 깨닫는 동시에, 자진해서 독서를 하고,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를 소중히 하고, 감정이나 의견을 서로 전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말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는 동시에, 독서를 생활에 유용하게 쓰고,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를 소중히 하고, 감정이나 의견을 서로 전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3) 말이 지니는 가치를 인식하는 동시에, 독서를 통해서 자기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관여하여 감정이나 의견을 서로 전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일본은 중학교 국어과의 목표를 학년별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학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 세부 목표 1항인 ‘지식 및 기능’은 3개 학년 공통으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국어과가 담당하는 지식 및 기능을 익힘과 동시에 자국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친숙해질 수 있는 시기로 지정하고 있다.

국어과 세부 목표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학년별 발전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표기되어 있다. 2항의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전달하는 힘을 위한 요소로 이성적 부분과 감성적 부분을 언급한다. 이성적 부분은 1학년은 ‘조리 있게 사고하는 힘’으로 말과 글의 체계를 갖추고, 2·3학년에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으로 1학년 때 갖춘 능력을 기반으로 원리 과정을 포함해 이치에 맞는 말과 글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감성적 부분은 1학년은 ‘풍부하게 느끼거나 상상하는 힘’에서 2·3학년은 ‘공감하거나 상상하는 힘’으로 마음에 떠 올리는 생각의 방향이 개인을 시작으로 타인의 생각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성과 감성적 사고를 활용하여 소통하는 범위도 1학년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2·3학년은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전달하여 영역적 범위를 넓혀 깊이 있게 한다.

국어과 세부목표 3항은 ‘배움을 행한 힘, 인간성 등’으로 말의 가치를 1학년에서는 깨닫는 수준에서 2·3학년은 자신의 판단기준을 통해 분별하는 단계인 인식 수준으로 높인다. 독서와 관련해서도 1학년에서는 스스로 하는 자진적인 독서에서 2학년은 생활에 적용하고 3학년은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쓰임새 있는 실용적 독서를 하도록 한다. 자국의 언어문화에 대해서도 1·2학년 시기에는 소중히 여기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3학년에는 언어문화에 관여·관계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를 추구한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을 3년 전체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 목표를 살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은 국어 학습을 바탕으로 이해와 표현의 힘을 기르고 각국의 국어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학습자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국어과 교육 목표의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존재하였다. 한국의 국어교육은 학습자의 개성적인 면모를 존중하고 국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도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습자를 국어교육의 목표로 밝히고 있다. 본 논

문의 관심 대상인 현대 소설이 포함된 문학에 대해서는 한국은 문학을 다른 국어 영역들과 분리 언급하며, 문학을 향유하는 지식으로 수용과 생산의 단계를 밝히며 독자적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중학교 국어과 목표에서 발전, 변화하는 사회생활 속 언어적 감각과 가치를 강조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과 원활한 소통의 힘을 기르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인 사고력과 상상력 기르기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학년별 국어과 목표로 세분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로 범주를 넓히며 단계를 제시하였다. 문학에 대해서는 한국과 달리 독자적 언급 없이 언어활동을 강조하였으며, 문학에서 기를 수 있는 감성적 능력인 상상과 공감도 소통과 전달의 언어활동을 전제로 한 능력 배양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양국의 국어교육의 목적 차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 2. 국어과 영역 구분

해당 절은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과 영역 구분의 모습을 확인하고, ‘문학’영역의 위치를 살피고자 한다. 아래의 표는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 영역 구분의 모습을 정리한 표이다.

<표-13> 한·일 국어과 영역 구분

국가	국어과 영역 구분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한국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일본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		
	말	정보	언어문화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한·일 양국의 국어과 영역 구분을 살펴보면, 한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총 다섯 개의 영역으로 조직하고 있다. 문학은 언어인 문법과 언어활동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와 분리하여 단독 영역으로 교수·학습된다. 문학을 대상에 관한 판단과 분별 능력, 정서 및 미적 추구, 인간으로 지켜야 규범 등 복합적 내용을 다루는 분야로 취급한다. 따라서 단독 영역으로 분리하여 문학이 가진 고유한 특질을 학습자에게 내면화하는 것이 한국 국어과 문학교육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국어과 내용을 다섯 영역으로 분리하여 각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의 가능성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역 학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학습 기준점을 따로 두지 않아 영역을 통한 통합적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교육 목표인 「자질·능력」의 육성을 위해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 등」, 「학습을 향한 힘, 인간성 등」으로 나누어 구체화한 것을 이미 앞에서 확인하였다. 일본의 국어과 교수·학습 내용 역시 이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다만, 「학습을 향한 힘, 인간성 등」은 학년별 목표에 포함토록 하여 교수·학습 내용에서는 구체적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일본 국어과의 내용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힘을 높이고, 낯선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능력 육성을 중점으로 한다.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영역을 하위 범주로 배치하여 세 개별 영역의 총체적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이한 점은 일본의 ‘읽기’ 영역은 한국의 ‘읽기’와 ‘문학’ 영역이 합쳐진 형태라는 점이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은 언어적 특징을 지닌 영역들과 문학을 별도의 단독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문학을 ‘읽기’에 포함하여 ‘말하기·듣기, 쓰기’와 함께 언어활동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는 문학이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본질적 특성으로의 접근보다 언어 이해와 표현 활동의 일환으로 문학을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의 문학교육은 영역의 목표인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과정을 보일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흐름은 「지식 및 기능」으로 ‘말의 특징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 취급 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의 세 영역을 포함하는데, 이하 ‘말, 정보, 언어문화’로 간략히 지칭한다. ‘말’은 문법, 한자, 말의 종류를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문법’ 영역에 해당한다. 다만 단원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각 단원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시 제공된다. ‘정보’는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이해하고 관계 정리, 표현을 위한 취급 방법을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한국의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의 정보 취급 내용을 한데 모아 독립 영역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언어문화’는 고문 해석, 독서 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식 및 기능’ 내에서 ‘정보’와 ‘독서’는 대단원 안에 다른 영역과 함께 배치되기도 하고, 독립된 단원으로 배치되기도 하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 국어과에서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국어과 해설의 설명을 보면 [지식 및 기능]에 대해 ‘살아 작동하는 지식 및 기능’<sup>41)</sup>(生きて働く「知識及び技能」)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 지식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영역을 넓혀 가는 중학생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학습자의 실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가르친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 내용 구성 체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문학을 언어, 언어활동과 분리하여 문학의 독자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은 문학을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위한 읽기 활동의 일부로 포함하여 분석과 판단, 전달 소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앞서 확인한 국어과 교육 목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어 교육의 방향성 차이로 양국 문학 영역의 배치 형태도 한국은 분리형, 일본은 통합형으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양국의 문학 영역 구분의 차이가 어떠한 영역 체계

41)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문부과학성. p.12.



와 내용을 담아내는지 계속 추적해본다.

### 3. 국어과 문학 영역의 구성과 성취기준

한국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과정 고시 자료에는 국어과 내용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 영역 학습 내용 체계를 표로 만들어 두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국어 교과학습의 계통적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영역 체계는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분하여 국어과 다섯 개 영역의 구성 기준이 된다. 학습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나누고 있다. 문학 영역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기능’은 전 학년 군 공통으로 작용하고, ‘학년 내용 요소’는 학년별 층위를 두

<표-14> 한국 중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 체계와 내용<sup>42)</sup>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 내용 요소 (중학교 1~3학년)	기능
▶문학의 본질	문학은 인간의 삶을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통해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타자와 소통하는 행위이다.	·심미적 체험의 소통	·몰입하기 ·이해·해석하기 ·감상·비평하기
▶문학의 갈래와 역사 ·서정 ·서사 ·극 ·교술 ▶문학과 매체	문학은 서정, 서사, 극, 교술의 기본 갈래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 문자, 매체의 변화와 함께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노래, 시 ·이야기, 소설 ·극 ·교술	·성찰·향유하기 ·모방·창작하기 ·공유·소통하기 ·점검·조정하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은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비유, 상징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의 내용·형식·표현</li> <li>·작품의 맥락</li> <li>·작가와 독자</li> </ul>	<p>하여 작가와 독자가 창의적으로 작품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li> <li>·보는 이, 말하는 이의 관점</li> <li>·작품 해석의 다양성</li> <li>·재구성된 작품의 변화 양상</li> <li>·개성적 발상과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에 대한 태도</li> <li>·자아 성찰</li> <li>·타자의 이해와 소통</li> <li>·문학의 생활화</li> </ul>	<p>문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간과 세계를 성찰하며 문학을 생활화할 때 문학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학을 통한 성찰</li> </ul>	

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중학교 학습자는 3년의 기간 동안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와 역사, 문학과 매체’,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에 대한 태도’의 네 가지 핵심개념 아래 학년 군에 할당된 ‘학년 내용 요소’를 학습하게 되며, ‘몰입하기-이해-해석하기-감상·비평하기-성찰·향유하기-모방·창작하기-공유·소통하기-점검·조정하기’의 문학의 영역에서 작용해야할 ‘기능’을 통해 내용을 활성화한다.

‘문학의 본질’은 문학 자체가 가진 성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학습이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여 감정과 사상을 문학 특유의 방법으로 표현한 예술이기에 그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을 근본 성질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문학에 담긴 아름다움을 생생한 체험으로 살피고 찾는 ‘심미적 체험’을 하도록 한다. 심미적 체험의 문학 범위는 노래와 시, 이야기와 소설, 극, 교술과 같은 특색 있는 ‘문학의 갈래’이며, 이를 통해 고전과 근·현대 작품을 넘나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험 하도록 한다.

42)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교육부. p.4.

‘문학의 수용과 생산’은 문학작품을 유기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을 해보는 등, 다양한 문학 활동을 접하는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가 소통 교감하는 경험을 하는데 초점을 둔다. 문학이 가진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본 양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문학의 밑바탕이 되는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배경 지식, 가치관, 사회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작품 해석은 다양해지며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 역시 정해져 있지 않고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존 작품을 변형해보거나 새롭게 창작해 보는 것도 감상의 새로운 접근임을 알게 하고 있다.

‘문학에 대한 태도’는 문학작품을 통한 내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활발한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체험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태도에 효과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학교 군에서는 ‘문학을 통한 성찰’로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내면을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동력으로써의 문학을 경험하게 된다.

한국의 문학 교육은 문학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심리와 정신을 다스리는 자세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학 영역 내용에 구체적 기능 활동을 포함하여 문장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 성취기준이며 중학교 3년 동안 달성할 목표로 제시된다.

<표-15> 한국 중학교 국어과 문학 영역 성취기준<sup>43)</sup>

번호	문학 영역 성취기준
1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한다.

43)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교육부. p.53.

2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3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4	작품에서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한다.
5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6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한다.
7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8	재구성된 작품을 원작과 비교하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며 감상한다.
9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한다.
10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한국의 문학 영역 ‘성취기준’은 앞서 살핀 문학 영역체계에서 ‘학년 내용 요소’를 활용하여 구체적 활동의 종류를 담아 학습자에게 문장 형태로 제공된다. 활동의 종류는 총 세 종류로 (1) ‘수용 활동’ - 감상한다. 이해한다. 수용한다. (2) ‘생산 활동’ - 생산한다. 활동한다. 형상화한다. (3) ‘태도 활동’ - 태도를 지닌다. 로 구성되어 있다. (1) 항은 문학의 형식, 맥락 요소와 함께 배치되어 갈래 특성과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며, (2) 항은 수용 활동을 통해 가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변용하거나 창작하는 단계이며, (3) 항은 작품을 통해 얻은 기준을 자신에 비추어 보고 성찰 활동을 하는 단계이다.

‘성취기준’ 내용은 ‘학년 내용 요소’를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이는 교과서에서 이루어질 학습의 최종 목표가 문학 작품이 가진 하나의 개별 요소로 향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sup>44)</sup>을 살펴보면, 성취기준에 제시된 요소

44)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교육부. p.54.

만 치중하지 않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연계하게 하고, 학습자가 개인과 외부 세계에 대한 일정한 견해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교수·학습 방법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은 노랫말, 광고, 영화, 만화, 연극, 뮤지컬,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를 두루 사용하며, 수용과 생산 활동의 범위는 학습 갈래에 한정하지 않고 수용, 비판적 창조적 재구성, 생산의 과정을 학습자가 자유롭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견해와 태도 형성에 대해서는 개별 문학작품을 학습자 삶과 연계하여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문화 속 인간의 삶과 보편적 갈등, 정서를 통해 성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문학교육은 문학을 성립하고 있는 유기적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제공하고 학습자의 경험과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 가치관과 세계관,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앞 문단의 성취기준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성취기준에 제시된 요소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와 적절한 문학 학습과정을 의도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표-16> 일본 중학교 국어과 읽기 영역 체계와 내용<sup>45)</sup>

영역 체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지 도 사 항	구 조 와 내 용	설 명 적 인 글	가. 글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주장과 예시와의 관계나 <b>등장인물의 설정 방법 등을 파악할 것.</b>	가. 글의 종류를 근거로, 논리와 <b>이야기의 전개 방법 등을 파악할 것.</b>
	구 조 와 내 용	가. 글의 중심적인 부분과 부가적 부분, 사실과 의견과의 관계 등에 대해 서술을 바탕으로 포착하여, 요지를 파악할 것.	가. 글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주장과 예시와의 관계나 <b>등장인물의 설정 방법 등을 파악할 것.</b>	가. 글의 종류를 근거로, 논리와 <b>이야기의 전개 방법 등을 파악할 것.</b>

의 과 적 학 인 글	문	<p>나. <u>장면의 전개나 등장인물의 상호 관계, 심정의 변화 등에 대하여, 묘사를 바탕으로 파악할 것.</u></p>			
	조 사 · 해 석	내 용	<p>다.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에 주목해 요약하거나, <u>장면과 장면, 장면과 묘사 등을 결합하여 내용을 해석할 것.</u></p>	<p>나. 목적에 따라 복수의 정보를 정리하면서 적절한 정보를 얻거나, <u>등장인물의 언동의 의미 등에 대해 생각하거나 내용을 해석할 것.</u></p> <p>다. 글과 도표 등을 연결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내용을 해석할 것.</p>	<p>나. <u>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글에 나타나는 것의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생각하라.</u></p>
		형 식	<p>라. 글의 구성과 <u>전개, 표현의 효과에 대해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각 할 것.</u></p>	<p>라. 관점을 명확히 하여 글을 비교하는 등 문장의 구성이나 논리의 전개, <u>표현의 효과에 대해 생각할 것.</u></p>	<p>다. 문장의 구성이나 논리의 전개, <u>표현 방법에 대해 평가할 것.</u></p>
생각의 형성, 공유		<p>마. <u>글을 읽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할 것.</u></p>	<p>마. <u>글을 읽고 이해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시켜 자신의 생각을 넓히거나 깊게 하는 것.</u></p>	<p>라. <u>글을 읽고 생각을 넓히거나 깊게 하여 인간, 사회, 자연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질 것</u></p>	

<b>언어활동</b>	<p>가. 설명이나 기록 등의 문장을 읽고 이해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보고하거나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p> <p>나. <u>소설이나 수필 등을 읽고 생각한 것 등을 기록하거나 서로 전하는 활동.</u></p> <p>다.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생각한 것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로 정리하는 활동.</p>	<p>가. 보거나 해설 등의 문장을 읽고 이해한 것이나 생각한 것을 설명하거나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p> <p>나. <u>시가나 소설 등을 읽고, 인용해 해설하거나, 생각한 것 등을 서로 전달하는 활동.</u></p> <p>다. 책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모은 정보를 활용해 출처를 밝히면서 생각한바 등을 설명하거나 제안하는 활동.</p>	<p>가. 논설이나 보도 등의 문장을 비교하는 등 읽고 이해한 것이나 생각한 것에 대해 토론하거나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p> <p>나. <u>시가나 소설 등을 읽고 비평하거나 생각한바 등을 서로 전달하는 활동.</u></p> <p>다. 실용적인 문장을 읽고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활동.</p>
-------------	--	---	---

45)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문부과학성. p.38~39.

領域の構成 学年		第1学年	第2学年	第3学年
		<b>指導事項</b> <b>構造的な内容の把握</b>	<p>ア.文章の中心的な部分と付加的な部分, 事実と意見との関係などについて叙述を基に捉え, 要旨を把握すること。</p> <p>イ. <u>場面の展開や登場人物の相互関係, 心情の変化な</u></p>	<p>ア.文章全体と部分との関係に注意しながら, 主張と例示との関係や <u>登場人物の設定の仕方などを捉えること。</u></p>

精 査 ・ 解 釈	的 な 文 章	<p> <u>どについて、描写を基に捉えること。</u> </p>		
	内 容	<p>           ウ. 目的に応じて必要な情報に着目して要約したり、  <u>場面と場面、場面と描写などを結び付けたりして、内容を解釈すること</u> </p>	<p>           イ. 目的に応じて複数の情報を整理しながら適切な情報を得たり、<u>登場人物の言動の意味などについて考えたりして、内容を解釈すること。</u>            ウ. 文章と図表などを結び付け、その関係を踏まえて内容を解釈すること。         </p>	<p> <u>イ. 文章を批判的に読みながら、文章に表れているもの見方や考え方について考えること。</u> </p>
	形 式	<p>           エ. 文章の構成や展開、<u>表現の効果について、根拠を明確にして考えること。</u> </p>	<p>           エ. 観点を明確にして文章を比較するなどし、文章の構成や論理の展開、<u>表現の効果について考えること。</u> </p>	<p>           ウ. 文章の構成や論理の展開、<u>表現の仕方について評価すること。</u> </p>
	考 え の 形 成 共 有	<p> <u>オ. 文章を読んで理解したことに基づいて、自分の考えを確かなものにするこ</u> <u>と。</u> </p>	<p> <u>オ. 文章を読んで理解したことや考えたことを知識や経験と結び付け、自分の考えを広げたり深めたりすること。</u> </p>	<p> <u>エ. 文章を読んで考えを広げたり深めたりして、人間、社会、自然などについて、自分の意見をもつこと。</u> </p>
言語活動	<p>           ア. 説明や記録などの文章         </p>	<p>           ア. 報告や解説などの文章を         </p>	<p>           ア. 論説や報道などの文章を         </p>	



일본은 2절의 ‘국어과 내용 구성 비교’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문학을 비문학과 함께 ‘읽기’ 영역으로 구성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13>은 ‘읽기’ 영역의 구성 체계와 영역 내용을 담아 제공하는 표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학에 관련된 내용을 밑줄로 표시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한국은 ‘문학 영역 체계와 내용’ 표에 담긴 ‘학년 내용 요소’를 구체화하여 ‘성취기준’으로 만들어 따로 제시한다. 반면 일본은 ‘읽기’영역 체계에 담긴 영역 내용이 한국의 ‘성취기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본의 ‘읽기 영역의 체계’는 ‘지도사항’과 ‘언어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지도사항은’ (1) 구조와 내용 파악, (2) 조사해석(내용), (3) 조사해석(형식), (4) 생각 형성 공유의 순서로 학습과정을 전개한다. (1)은 글의 기본 내용과 구성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2)항과 (3)항에서는 (1)항에서 파악한 내용과 구성에 대해 의미를 발견하고 관련된 생각을 해보는 단계이다. 이후 (4)항을 통해 배경 지식, 개인

	<p>を読み, 理解したことや考えたことを報告したり文章にまとめたりする活動。</p> <p><u>イ.小説や随筆などを読み, 考えたことなどを記録したり伝え合ったりする活動。</u></p> <p>ウ.学校図書館などを利用し, 多様な情報を得て, 考えたことなどを報告したり資料にまとめたりする活動。</p>	<p>読み, 理解したことや考えたことを説明したり文章にまとめたりする活動。</p> <p><u>イ.詩歌や小説などを読み, 引用して解説したり, 考えたことなどを伝え合ったりする活動。</u></p> <p>ウ.本や新聞, インターネットなどから集めた情報を活用し, 出典を明らかにしながら, 考えたことなどを説明したり提案したりする活動。</p>	<p>比較するなどして読み, 理解したことや考えたことについて討論したり文章にまとめたりする活動。</p> <p><u>イ.詩歌や小説などを読み, 批評したり, 考えたことなどを伝え合ったりする活動。</u></p> <p>ウ.実用的な文章を読み, 実生活への生かし方を考える活動。</p>
--	---	---	---

의 경험과 연결하여 생각의 폭을 넓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언어활동’은 ‘지도사항’의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로 옮겨 실천해보는 것으로 예시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문학 영역 체계’가 문학의 근간을 이루는 문학의 본질적 특성, 갈래, 수용 생산을 위한 요소와 맥락, 문학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핵심 개념’을 배치하고 문학 특성에 알맞은 ‘기능’으로 활성화하는 체계를 가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기능’과 유사한 학습의 과정을 보이는 ‘지도사항’과 ‘언어활동’을 배치하고 ‘영역 내용’으로 이끈다. 문학 작품이 언어활동인 ‘읽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문학이 가진 특질적인 접근으로의 학습보다는 파악과 해석을 통한 생각 형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일본 국어과 읽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의 갈래와 내용 요소를 위 표에서 추출하여 살펴보면, 일본 문학 교육의 의도와 방향을 더욱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표의 ‘언어활동’을 살펴보면 일본 국어과는 문학 작품의 갈래를 ‘시, 소설, 수필’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의 문학 영역에서는 ‘노래와 시, 이야기와 소설, 교술, 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극 갈래를 문학 갈래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문학 고유 특질을 중시함에 따라 다양한 갈래별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반면, 일본은 문학을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위한 활용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연이라는 문학적 활동을 하는 희곡 갈래는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읽기 영역 문학의 내용 요소는 ‘장면, 등장인물, 전개 방법, 표현 방법’과 같은 작품의 해석과 분석 판단의 재료가 되는 형식 요소 위주로 구성하고 있다. 한국이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학습자 성장을 돕기 위해 영역 내용을 문학의 본질, 문학작품의 구성 요소, 문학작품 감상 방법, 문학작품을 통한 태도를 담아 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주어진 문학작품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 위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문학 교육의 목적 차이에 의한 방법 차이를 선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성취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가진 ‘읽기 영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역 체계인 ‘지도사항’과 ‘언어활동’의 순서에 따라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은 (1) 구조와 내용 파악에서 작품에 묘사,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장면과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인물의 심정과 상호관계 등의 기본적 내용을 파악한다. (2),(3)의 조사와 해석에서는 앞서 파악한 내용을 연결 조합하여 작품에 담긴 의미와 자신의 생각을 통해 새로운 의미도 도출해보도록 하는데,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신이 가진 해석이나 생각은 작품 등장인물, 구성과 전개, 표현 등이 가진 의미와 효과를 까담으로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생각 형성과 공유에서는 앞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얻은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또한 잘 전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언어활동’의 예에서 작품을 읽고 해설하거나 생각한 내용을 서로 잘 전달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작품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말과 글의 언어로 표현하여 서로의 생각을 잘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2학년은 (1) 구조와 내용 파악에서 등장인물 설정 방식을 파악한다. 1학년 때는 인물에 대한 심정과 인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면 2학년에서는 인물을 둘러싼 시간, 공간, 서술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작품 해석의 깊이를 더한다. (2),(3) 조사와 해석에서는 앞서 확인한 등장인물이 가진 배경 속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의 의미와 이로 인한 내용 전개 흐름을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묘사 방법이나 비유 등의 표현기법을 확인하여 작품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4) 생각 형성과 공유에서는 1학년 시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공고히 하는 시기였다면, 2학년 시기에는 작품의 내용만이 아닌 자신의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깊어진 감상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 시킨다. ‘언어활동’에서는 자신의 해석과 감상을 전달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작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고, 해설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학년의 (1) 구조와 내용 파악에서는 1학년의 인물과 장면의 묘사, 2학년에는 인물 설정 방법, 3학년에서는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작품의 내용의 전개와 흐름을 통해 글 전체의 이해도를 더욱 높인다. (2),(3)의 조사와 해석에서는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내용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비판해 보고, 형식에 대해서는 작품 표현 방법이나 구성에 대해 효과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4) 생각 형성과 공유에서는 앞서 학습한 과정들을 통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인간, 사회, 자연 등으로 확대하여 실제 삶 속에 적용한다. “의무교육 수료 단계로서 사회생활 속의 다양한 사건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6)</sup> “(義務教育修了段階として，社会生活の中の様々な事象について，より広い視野をもって自分の意見を形成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라고 표현하며, 문학 교육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판단과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해 얻는 기능과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식적 기능과 가치, 윤리적 기능과 가치, 미적 기능과 가치로 구분하는데, 한국의 문학교육은 세 가지 기능과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문학교육은 인식적 기능과 가치와 윤리적 기능과 가치가 주를 이루고 미적 기능과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비교를 수행하였다. 양국은 앞 장에서 ‘학습자의 삶’이라는 공통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한 독자적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어과에서도 이를 위해 국어과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시각과 방향차이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국어과 교육 목표 비교에서 한국은 학습자의 개성 발현을 존중하고, 국어과 하위 영역이 지닌 본질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학 영역은 향유하는 지식으로

46) 일본 2017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문부과학성. p.129.

수용과 생산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여 일상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언어 활용 능력을 중시한다. 학교급과 학년별 국어과 목표를 따로 제시하여 단계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국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으로 ‘문학’을 단독 영역을 분리하고, 일본은 「지식 및 기능」을 위해 ‘말, 정보, 언어문화’를 배치하고,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을 위해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를 하위 영역으로 하여 ‘문학’이 언어활동인 ‘읽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문학’ 영역 구성은 한국은 문학의 본질, 갈래, 역사, 매체, 수용과 생산, 태도에 이르기까지 문학을 이루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은 구조와 내용 파악, 조사·해석(내용), 조사·해석(형식), 생각 형성 공유의 일련의 언어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성취기준은 한국은 영역 내용의 요소와 행동을 결합하여 성취기준을 따로 마련해두고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결합하여 학습자의 세계관, 가치관, 태도 형성을 도모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영역 내용을 문학의 ‘장면, 등장인물, 전개 방법, 표현 방법’과 같은 파악을 위한 요소 위주로 배치한 후 최종적으로 사회생활에서의 사고, 판단,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가 추구하는 문학교육은 학습자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평가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학을 심미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한국과, 언어활동의 하나로 바라보는 일본의 관점의 차로 인한 문학 교육 방법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큰 차이를 보였다.

#### IV. 한·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교육 비교

##### 1. 교과서 단원 구성과 체제

한국과 일본의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과 체제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차례로 접근하고자 한다. 1항에서 양국의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알아보고, 2항에서는 대단원 체제를, 3항에서는 현대 소설 단원 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 (1) 교과서 단원 구성

양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배열과 구성은 아래에 나올 <표-17>과 <표-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7> 한국 천재(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학년-학기	단원	대단원명	소단원 내용	
1-1	1단원	새로운 시작	(1) 문학	(2) 문학
	2단원	세상과 함께 자라는 꿈	(1) 읽기	(2) 쓰기
	3단원	언어랑 국어랑 놀자	(1) 문법	(2) 문법
	4단원	더불어 살아가기	(1) 문학	(2) 듣기·말하기
1-2	1단원	함께 성장하는 우리	(1) 문학	(2) 쓰기
	2단원	소통으로 여는 세상	(1) 듣기·말하기	(2) 쓰기
	3단원	능동적인 언어생활	(1) 읽기	(2) 듣기·말하기
	4단원	생활 속의 글과 말하기	(1) 읽기	(2) 문법, 듣기·말하기
2-1	1단원	문학의 눈	(1) 문학	(2) 문학
	2단원	세상과 주고받는 글	(1) 읽기	(2) 쓰기

	3단원	즐거운 언어생활	(1) 문법	(2) 문법
	4단원	우리가 만나는 매체	(1) 읽기	(2) 듣기·말하기
2-2	1단원	표현의 빛깔	(1) 문학	(2) 문학
	2단원	읽고 쓰는 즐거움	(1) 읽기	(2) 쓰기
	3단원	생각과 감정을 나누다	(1) 문법	(2) 듣기·말하기
	4단원	함께 여는 세상의 창	(1) 문학	(2) 문학
3-1	1단원	문학과 만나는 시간	(1) 문학	(2) 문학
	2단원	우리가 만나는 세상	(1) 듣기·말하기	(2) 쓰기
	3단원	아름다운 우리말	(1) 문법	(2) 문법
	4단원	세상을 여는 열쇠	(1) 읽기	(2) 쓰기
3-2	1단원	문학의 샘	(1) 문학	(2)문학
	2단원	너의 생각, 나의 생각	(1) 읽기	(2) 듣기·말하기
	3단원	탐구하는 우리	(1) 쓰기	(2)문법
	4단원	세상을 보는 눈	(1) 읽기	(2) 듣기·말하기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한 학년에 1학기과 2학기과로 분권하고, 한 학기 교과서에 네 개의 대단원을 배치하여 1년의 기간 동안 총 8개의 대단원을 학습한다. 하나의 대단원에는 두 개의 소단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소단원은 국어과 하위 영역에서 한 영역을 선별하여 관련 내용을 담는다. 1학년 2학기 4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은 예외적으로 두 영역을 함께 담고 있다. 문법과 문학 영역은 각각 단독으로 대단원을 다수 구성하고 있으며, 언어활동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대단원 내에 교차적으로 배치한다. 특이점은 1학년 1학기 4단원에는 문학과 듣기·말하기, 1학년 2학기 1단원에는 문학과 쓰기, 3학년 2학기 3단원은 쓰기와 문법이 하나의 대단원을 이루고 있다. 소단원 수가 적어서 특정 영역을 심도 있고 집중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며, 영역 분리의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복합 단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원의 영역 비율을 보면 문학 29.17%, 읽기 18.75%, 듣기·말하기 17.70%, 문법 17.70%, 쓰기 16.75%로 문학 영역의 비율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교과서의 문학 단원 본문 제재의 갈래 별 비율은 현대시 52.63%, 현대 소설 26.31%, 고전소설 10.52%, 현대수필 5.2%, 시나리오 5.2%의 순서였다.<sup>47)</sup>

문학 영역을 다루고 있는 대단원명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작’, ‘더불어 살아가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문학의 눈’, ‘표현의 빛깔’, ‘문학과 만나는 시간’, ‘함께 여는 세상의 창’, ‘문학과 만나는 시간’, ‘문학의 샘’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단원명에 문학을 직접 표기하거나, 문학 작품을 통해 얻는 가치를 담아 해당 단원이 문학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단원의 일부를 살펴보면, ‘함께 여는 세상의 창’은 갈래 특성의 한계를 넘어 영상과 공연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나 상상력 발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선한 체험을 제공한다. 준비 과정에서 타인과 협력하는 자세도 더불어 익힐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기’는 소설의 핵심 요소인 갈등 상황을 파악한다. 문학 작품을 통해 갈등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하고, 듣기·말하기 영역의 토의와 연결하여 현대 사회 속 다양한 갈등 상황을 토의라는 방식을 이용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쓰기 영역과 연계한다. 글로 표현하고 타인과 공유하며 자신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배치된 문학 대단원은 문학의 본질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타인과의 협력하는 자세를 배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국어과 영역의 48개의 소단원 중 문학 14개 단원, 말하기·듣기, 읽기, 문법 각각 9개 단원, 쓰기 8개 단원. 문학 소단원 본문 제재 글 총 19개 현대시 10개, 현대 소설이 5개, 고전소설 2개, 현대수필 1개, 극(시나리오) 1개.



<표-18>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학년	단원	대단원명	소단원 내용
1			읽기
		말을 만나기 위해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1단원	배움을 열다	읽기, 말하기·듣기, 정보, 쓰기
	2단원	새로운 시점에서	읽기, 읽기, 정보, 말하기·듣기
		정보 사회를 살다.	정보, 정보, 정보
	3단원	말에 멈춰 서다.	읽기, 읽기
		독서 생활을 풍부하게	독서, 독서
	4단원	마음을 움직임	읽기,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쓰기
	5단원	조리 있게	읽기, 정보, 쓰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읽기
	6단원	옛 마음에 닿는다.	읽기, 읽기
	7단원	가치를 발견하다.	읽기, 쓰기
		독서와 친해지다.	독서
8단원	자신을 들여다 보다.	읽기,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2			읽기
	1단원	넓어지는 배움으로	읽기, 말하기·듣기, 읽기, 정보, 쓰기
	2단원	다양한 시점에서	읽기, 정보, 말하기·듣기
		정보 사회를 살다.	정보, 정보, 정보
	3단원	말과 마주하다.	읽기, 읽기, 읽기
		독서 생활을 풍부하게	독서, 독서
4단원	인간의 정	읽기,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쓰기	

	5단원	논리를 파악하여	읽기, 정보, 쓰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읽기
	6단원	옛 마음에 방문하다.	읽기, 읽기, 읽기
	7단원	가치를 말하다.	읽기, 읽기, 쓰기
		독서와 친해지다.	독서
	8단원	표현을 들여다 보다.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3			읽기
	1단원	깊어지는 배움으로	읽기, 말하기·듣기, 읽기, 정보, 쓰기
	2단원	시야를 넓혀서	읽기, 정보,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정보 사회를 살다.	정보, 정보
	3단원	말과 함께	읽기, 읽기
		독서 생활을 풍부하게	독서, 독서
	4단원	상황 속에서	읽기,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5단원	자신들의 생각	읽기,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말하기·듣기, 읽기
	6단원	옛 마음을 이어받다.	읽기, 읽기
	7단원	가치를 창출하다.	읽기, 쓰기
		독서와 친해지다.	독서
	8단원	미래를 향하여	읽기,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한국과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 번째 차이점은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8개 대단원이 단원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순차적 대단원 사이에 단원 번호가 없는 단원을 배치하고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한국은 하나의 대단원에 두 개의 소단원을 구성하여 소단원 번호를 붙여 분류하고 있으나, 일본은 소단원을 구

분해 주는 숫자나 기호 없이 하나의 대단원에 여러 영역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일본의 국어 교육과정과 영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국어 교육은 국어과 하위 영역의 본질적 탐구보다는 각 영역을 활용하여 구체적 자질과 목표인 ‘지식 및 기능’과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능력을 추구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에는 위의 두 가지 능력을 기르는 내용이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하위 영역인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와 ‘지식 및 기능’의 ‘정보, 독서, 말(문법, 한자, 언어)’을 교차적으로 배치한다. 다만 ‘문법, 한자, 언어’는 단원을 특정하지 않고 다수 단원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독서, 정보’의 다섯 개의 내용 표시<sup>48)</sup>를 통해 학습자가 길러야 하는 능력과 자질이 무엇인지 표현되고 있다. 특히 ‘독서’와 ‘정보’는 단원 번호가 있는 대단원 내에 포함 되어 있기도 하고, 대

48) <사진-1>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영역 표시와 차례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독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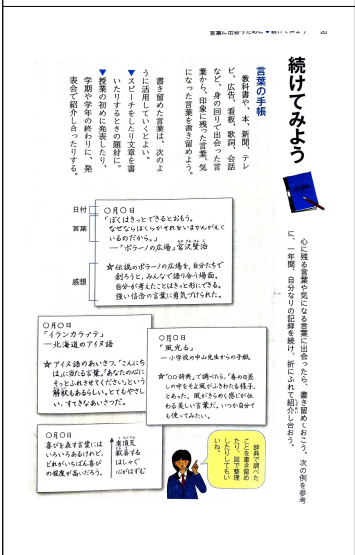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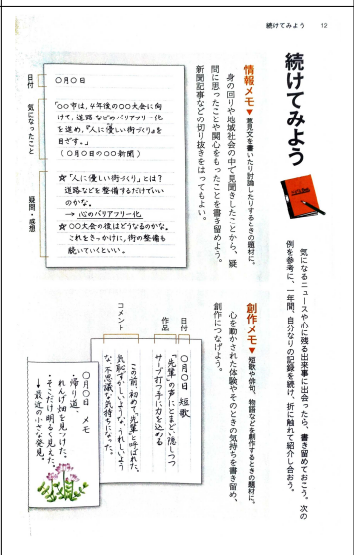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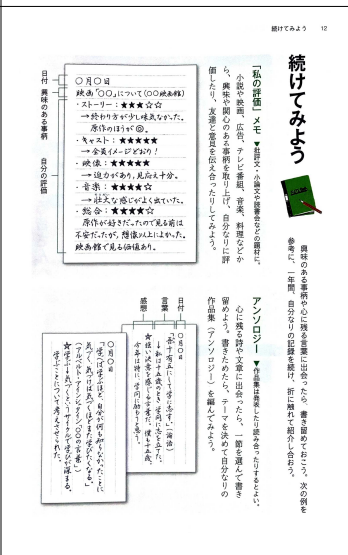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교과서 2학년 차례)

3 目次		国語 2 目次	
5	モアイは語る―地球の水素	1	アイヌフラナット
4	鉄工産	2	クマゼミ増加の原因を探る
3	短歌に親しむ	3	魅力的な提案をしよう
2	読書を楽しむ	4	メディアを比べよう
1	見たいだけ	5	見たいだけ

단원과 동등한 형태로 단독 구성되기도 한다. 단독 단원의 경우 각 학년 2단원과 3단원 사이에 한 개의 정보 단원이 있으며, 각 학년 3단원과 4단원 사이와 7단원과 8단원 사이에 두 개의 독서 단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와 정보는 중학교 3년간 교과서의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며 계통적 학습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일본 국어과 교육이 정보와 독서 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이점으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맨 앞부분에는 노트 작성법<sup>49)</sup>을 소개하고 있

49) <사진-2>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노트 작성 지도

1학년 〈노트작성〉	2학년 〈정보 메모, 창작 메모〉	3학년 〈평가 메모, 작품집〉
		
<p>지속적으로 해보자.</p> <p>마음에 남는 말과 궁금한 말과 마주하게 되면 적어두자.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1년간 나름대로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여, 시</p>	<p>지속적으로 해보자.</p> <p>궁금한 뉴스나 마음에 남는 사건과 마주하게 되면 적어두자.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1년간 나름대로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여,</p>	<p>지속적으로 해보자.</p> <p>흥미 있는 사항이나 마음에 남는 말과 마주할 때, 적어두자.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1년간 나름대로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하여,</p>

다. 노트 작성법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다양한 메모 유형을 익히고 노트를 꾸준히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단기적으로는 각 학년 최종 단원인 8단원에 포함된 일 년 동안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3학년 8단원에서 3년간의 학교생활과 배움을 책자 형태로 만들어 발표회를 한다. 일본은 대단원 정리를 수행하지 않고 학년 말에 1년 전체의 배움에 대해 정리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는 뒤에 나올 단원 체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영역 비율을 살펴보면 ‘읽기’가 57.95%, ‘쓰기’가 21.02%, ‘말하기·듣기’가 21.02%이며<sup>50)</sup>, 이중 ‘읽기’ 영역 내에 포함된 문학의

<p>기가 되면 서로 소개하자.</p> <p><b>말 수집</b>▶ 교과서나 책, 신문, 텔레비전, 광고, 간판, 가사, 회화 등 주변에서 접했던 말부터, 인상에 남았던 말, 궁금했던 말을 적어두자. 적어둔 말은, 다음과 같이 활용해 나가자.</p> <p>▲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쓸 때의 재제로.</p> <p>▲ 수업의 시작에 발표하거나, 학기나 학년의 마지막에 발표회에 서 서로 소개하거나 하자.</p>	<p>시기가 되면 서로 소개하자.</p> <p><b>정보 메모</b>▶ 의견문을 쓰거나 토론하거나 할 때의 재제로. 주변이나 지역사회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부터, 의문스럽게 생각한 것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적어두자. 신문기사 등을 오려 붙여도 좋다.</p> <p><b>창작 메모</b>▶ 단가나 하이쿠, 이야기 등을 창작할 때의 재제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체험이나 그때의 기분을 적어두어 창작과 연결하자.</p>	<p>시기가 되면 서로 소개하자.</p> <p><b>[나의 평가]메모</b>▶ 비평문, 소논문이나 독서회 등에 재제로 소설이나 영화, 광고, 텔레비전 방송, 음악, 요리 등에서부터 흥미와 관심이 있는 사항을 골라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친구들과 의견을 서로 나누거나 해보자.</p> <p><b>앤솔러지(명문선집)</b>▶ 작품집은 발표하거나 읽거나 하자. 마음에 남는 시나 글과 마주했다면, 한 구절을 골라 적어 두자. 적은 글이 모아지면, 주제를 정해 나름대로 작품집을 엮어보자.</p>
--	--	---

50) 일본 국어과 영역의 독서, 정보, 언어·한자·문법은 교과서 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으므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기본 기둥인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세 영역에 대해 분석한다. 말하기·듣기와 쓰기는 공동 단원인 경우 각각 0.5개로 계산하였다. 주요 세 영역의 3년간의 총수는 88개로 읽기 51개, 말하기·듣기 18.5개, 쓰기 18.5개가 포함되어 있다.

갈래별 비율을 시 55.17%, 소설 31.03%, 수필 13.79%로 파악되었다.<sup>51)</sup>

**(2) 교과서 대단원 체제**

양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체제는 아래에 나올 <표-19>와 <표-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9> 한국 천재(노미숙 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단원 체제

대단원					
도입	전개				정리
	(1) 소단원	(2) 소단원	선택 학습	여럿이 함께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역 표기</li> <li>· 대단원명</li> <li>· 소단원명</li> <li>· 단원 학습 전망</li> <li>· 단원 핵심 역량</li> <li>· 단원 펼쳐보기</li> <li>· 나의 목표 세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 학습</li> <li>▶ 본 학습</li> <li>▶ 정리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 학습</li> <li>▶ 본 학습</li> <li>▶ 정리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1</li> <li>▶ 활동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학습 되돌아보기</li> <li>· 독서 점검</li> </ul>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도입에는 국어과 영역 표기를 하고, 대단원명과 소단원명을 두 페이지에 걸쳐 큰 그림과 함께 제시한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대단원을 통해 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를 전망하고, 각 소단원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한다. 뒤를 이어 해당 단원의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예측하고 페이지 하단부에 해당 단원의 국어과 핵심 역량을 제시한다.

51) ‘읽기’ 영역에 포함된 문학 작품의 수로 분석하였으며, 총 문학 작품 수 29개 중 시 16개, 소설 9개, 수필 4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교육과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핵심 역량’은 국어과 특성에 알맞게 6가지 ‘국어과 핵심 역량’<sup>52)</sup>으로 변환·배정하고 있다. 문학 영역은 기본적으로 ‘국어과 핵심 역량’ 중 ‘문화 향유 역량’을 담당하며, 작품 내용이나 다른 영역 소단원과 대단원을 형성할 때는 ‘자기 성찰·계발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등을 일부 연결하여 포함한다. 앞서 한국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문학 교육은 학습을 통해 학습자 개성을 살림과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의도하고 있었다. 문학을 향유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의해 문학의 주된 역량을 ‘문화향유 역량’으로 정하고 다양한 국어과 핵심 역량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단원 펼쳐보기’가 나오는데 전개에서 제시될 제재 글과 학습 목표, 학습 요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자신 스스로가 단원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를 쓸 수 있는 메모 공간인 ‘나의 목표 세우기’도 신고 있어 자신이 해당 학습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선명하게 그릴 수 있다. 도입 부분을 총 4페이지에 걸쳐 제시하고, 매 과정마다 또래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들을 포함하여 친근감과 동기를 유발시킨다.

전개는 ‘소단원’ 2개 - ‘선택 학습’ - ‘여럿이 함께 하기’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소단원에 대한 구체적 체계와 내용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룬다. ‘선택 학습’은 두 개의 소단원 학습을 끝낸 후 관련 내용을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보충 선택적 개념의 내용을 이어 제공하는 부분으로 활동1과 활동2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활동에는 본 학습과 연계되는 작품을 수록하고, 작품에 질문을 담아 학습의 깊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선택 학습’이 끝나면 각 소단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 학습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럿이 함께 하기’를 두어 전개 학습을 마무리 한다.

52) 국어과의 핵심역량은 ‘문화 향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다.

정리는 한 페이지 분량의 ‘단원을 마치며’로 전체 학습 내용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한다. ‘나의 학습 되돌아보기’라는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을 두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며, 느낀 점을 자신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독서 점검’은 현재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제목과 독서 계획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교과서 맨 앞에 있는 독서 기록장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독서 활동을 유도한다. 더불어 한국의 천재(노)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대단원과 대단원 사이에 ‘쉼터’를 마련하여 대단원 학습이 종료되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흥미로운 이야기나 정보를 두 페이지에 담아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대단원 체계는 도입-전개-정리 각 단계마다 충실한 내용을 담아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도입에서는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학습 전망을 제시하고 스스로 단원 목표를 떠올릴 수 있게 하였으며, 전개에서는 각 소단원 학습이 끝나더라도 심화 학습의 기회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협력적이고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해보는 실제적 활동을 제공하였다. 정리에서는 대단원 전체 내용을 되돌아보고, 독서 활동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표-20>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단원 체계

대단원		마지막 대단원
도입	전개	정리
	소단원 (다수 구성)	
·대단원명 ·대단원 목표 ·대단원 내용 목차 ·대단원 내용 영역 표기	▶ 준비학습 ▶ 본 학습 ▶ 정리학습	‘1년의 학습 되돌아보기’



<사진-3>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대단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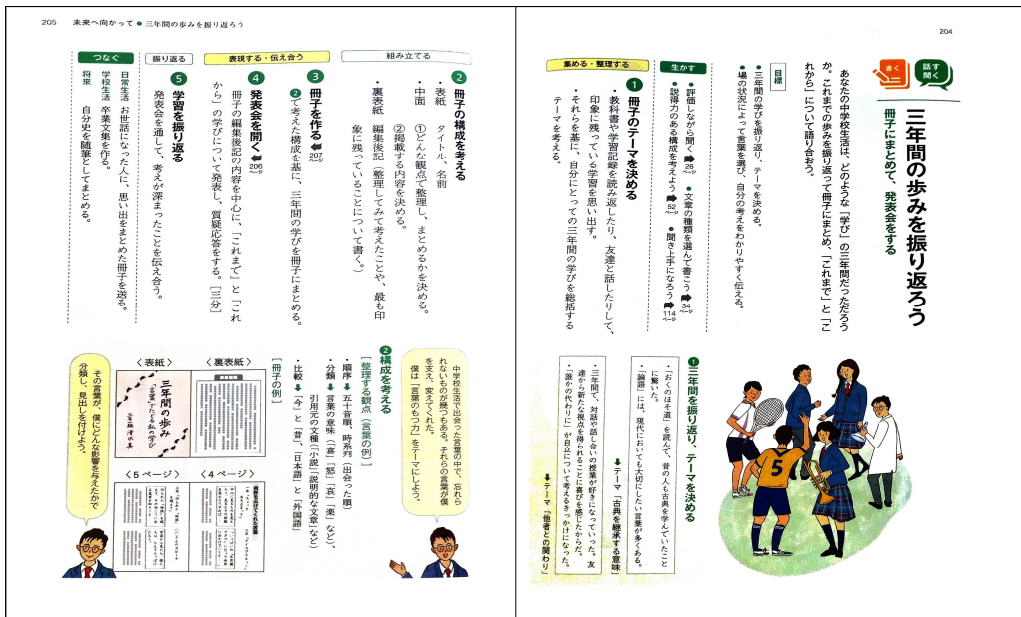
	<p>▶대단원명</p> <p>1. 배움을 열다</p> <p>▶대단원 목표</p> <p>여러 가지 말을 접하면서 학습의 전망을 가지다.</p> <p>▶대단원 내용 목차</p> <p>·읽기-신순(이야기)</p> <p>·말하기·듣기-듣기」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p> <p>(계절 안내서-봄)</p> <p>·정보-정보정리의 레슨 비교, 분류</p> <p>·쓰기-정보를 정리해 써보자.</p> <p>알기 쉽게 설명하자</p> <p>(한자1 의 구성과 부수 , 한자와 친해지기1)</p>
--	---

일본 국어 교과서 대단원 체계는 한국과 사뭇 다르다. 도입에는 한국이 4페이지 분량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 페이지 분량에 대단원명, 대단원 목표, 단원 내용 목차와 영역 표기를 한다. 페이지 반에 해당하는 큰 사진을 게재하는데 각 단원을 배우는 시기의 계절감이나 상황에 알맞은 자연을 주제로 한 사진을 싣고 있다. 전개는 단원 구성에서 확인하였듯이 여러 개의 영역 내용으로 구성한다. 일본 소단원의 체제는 한국 소단원 체제와 함께 뒷부분에서 자세히 확인한다.

일본 국어 교과서 대단원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리 부분이다. 한국은 각 대단원 종료 마다 정리 기능을 담당하는 ‘단원을 마치며’가 제시되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대단원 종료 시 해당 단원을 정리하는 정리 부분이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한국은 소단원 간의 연결성을 두고 단원 말미에 통합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은 대단원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단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일본 국어 교과서는 한 학년의 학습이 끝난 후에 ‘1년의 학습 되돌아보기’<sup>53)</sup>를 교과서 마지막 단원인 8단원에서 실시한다. 1년간의 배움을 되돌아보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3~4시간의 수업이 배정<sup>54)</sup>되어 있다. 학습자 스스로가 1년간의 학습 내용 중 인상 깊거나 흥미가 있는 내용을 골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활용하는 자료로 교과서와 정리 노트를 이용한다. 정리 노트는 앞서 살핀 각 학년 교과서의 제일 앞부분에 노트 작성 정보를 반영하여 1년 동안 꾸준히 쓴 노트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교과 활동을 되돌아보는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데 1학년은 그룹 발표, 2학년은 그룹끼리 벽보를 만드는 활동, 특히 졸업 앞둔 3학년은 3년간의 내용을 종합하여 책자를 만들어 발표회를 한다. 교과서에는 관련 활동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내용 설명이 되어 있다.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의의가 있어, 의미 있는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대단원 간의 응집성은 없으나, 한 권의 책을

53) <사진-4>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1년의 학습 되돌아보기’



54) 미즈무라 출판사 누리집. 연간계획 예.  
<https://www.mitsumura-tosho.co.jp>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1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 (3) 현대 소설 단원 체제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단원 체제는 아래에 나올 <표-21>에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표-21> 한·일 중학교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체제


소단원		현대 소설 단원 체제			
국가	체제	준비 학습	본 학습		정리 학습
			본문 학습	학습 활동	
한국	·소단원명 ·학습 목표 ▶ 생각 깨우기 ▶ 읽기 전에' ·사진, 그림	·소설 제목 ·작가 이름 ·체제 글 ·날개 문제 ·어휘 풀이 ·그림 ▶ 한눈에 보기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 <실천 학습>	▶ 생각 모으기 ▶ 생각 넓히기 ▶ 어휘 학습 ▶ 스스로 점검하기	
일본	·학습 목표	·소설 제목 ·체제 글 ·어휘 풀이 ·그림 ·한자 ▶ 넓어지는 독서 ·작가 정보 ·OR코드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 <실천 학습>	▶ 되돌아보기	

<사진-5>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준비학습

## 2 산문의 향기

학습 목표 산문에 나타난 서사의 성징과 표현 수법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감상할 수 있다.

상단 배너의 우리 학교를 상상하는 나무나 꽃을 찾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자.


●산문에서 나무나 산정의 표현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나무나 산정의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6 2학년 국어 1과

읽기 전

내가 만약 새처럼 하늘을 난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야기해 보자.



<사진-6>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준비학습

23 学びをひらく ● シンジュン

「あれ、嫌いだ。」

頭をがつんと使られたのを気がした。


ある日、園芸部の機嫌で小庭を覗いた。

短いお辞、全然明るくなくて、それどころか暗くて、悲しい顔だったけれど、僕はずっと好きだと思った。でも、どうして好きなのか全然説明もできなかった。だから、シンタに話そうと思った。僕が好きなんだから、シンタも絶対に好きだろう。そしてシンタなら、その理由を教えてくれるにちがいない。

休学時、僕いつものようにシンタの席へ行った。待ち切れなかった。わくわくしながら小庭の跡を切りだすと、シンタは顔をしかめた。

「あれ、嫌いだ。」

24



25

【目録】

● 1 山登り

● 2 山登り

● 3 山登り

● 4 山登り

● 5 山登り

● 6 山登り

● 7 山登り

● 8 山登り

● 9 山登り

● 10 山登り

● 11 山登り

● 12 山登り

● 13 山登り

● 14 山登り

● 15 山登り

● 16 山登り

● 17 山登り

● 18 山登り

● 19 山登り

● 20 山登り

● 21 山登り

● 22 山登り

● 23 山登り

● 24 山登り

● 25 山登り

● 26 山登り

● 27 山登り

● 28 山登り

● 29 山登り

● 30 山登り

● 31 山登り

● 32 山登り

● 33 山登り

● 34 山登り

● 35 山登り

● 36 山登り

● 37 山登り

● 38 山登り

● 39 山登り

● 40 山登り

● 41 山登り

● 42 山登り

● 43 山登り

● 44 山登り

● 45 山登り

● 46 山登り

● 47 山登り

● 48 山登り

● 49 山登り

● 50 山登り

● 51 山登り

● 52 山登り

● 53 山登り

● 54 山登り

● 55 山登り

● 56 山登り

● 57 山登り

● 58 山登り

● 59 山登り

● 60 山登り

● 61 山登り

● 62 山登り

● 63 山登り

● 64 山登り

● 65 山登り

● 66 山登り

● 67 山登り

● 68 山登り

● 69 山登り

● 70 山登り

● 71 山登り

● 72 山登り

● 73 山登り

● 74 山登り

● 75 山登り

● 76 山登り

● 77 山登り

● 78 山登り

● 79 山登り

● 80 山登り

● 81 山登り

● 82 山登り

● 83 山登り

● 84 山登り

● 85 山登り

● 86 山登り

● 87 山登り

● 88 山登り

● 89 山登り

● 90 山登り

● 91 山登り

● 92 山登り

● 93 山登り

● 94 山登り

● 95 山登り

● 96 山登り

● 97 山登り

● 98 山登り

● 99 山登り

● 100 山登り

22

## シンジュン 西加奈子

初めてシンタに会ったときは驚いた。中学校の入会式、そこに「僕がいる。」と想った。

身長も同じくらい、くせ毛の生え方も似ているし、二重の目はほほも、鼻筋の長さも、同じ制服を着ているから、なまじら僕にそっくりだった。僕たちは互いに仲よくなかった。まるで磁石が引き合うみたい。

話をしてみると、好きなものも嫌いなものも同じだった。好きな食べ物(つゆ)がたつりの牛乳、好きな飲み物(炭酸の強いソーダ)、姉ちゃんがいるのも同じだし、蛇口から温かい水を飲みたいのが好きで、靴下はうろうろしい。体育が好きで、音楽が苦手。

誰か目には透つたし、名字も名前も違っけど、なまじらでも、僕はシンタだ、十分似ている。僕とシンタはまじらで友達だ。みんなは、僕たちのことをまじら

23

【目録】

● 1 山登り

● 2 山登り

● 3 山登り

● 4 山登り

● 5 山登り

● 6 山登り

● 7 山登り

● 8 山登り

● 9 山登り

● 10 山登り

● 11 山登り

● 12 山登り

● 13 山登り

● 14 山登り

● 15 山登り

● 16 山登り

● 17 山登り

● 18 山登り

● 19 山登り

● 20 山登り

● 21 山登り

● 22 山登り

● 23 山登り

● 24 山登り

● 25 山登り

● 26 山登り

● 27 山登り

● 28 山登り

● 29 山登り

● 30 山登り

● 31 山登り

● 32 山登り

● 33 山登り

● 34 山登り

● 35 山登り

● 36 山登り

● 37 山登り

● 38 山登り

● 39 山登り

● 40 山登り

● 41 山登り

● 42 山登り

● 43 山登り

● 44 山登り

● 45 山登り

● 46 山登り

● 47 山登り

● 48 山登り

● 49 山登り

● 50 山登り

● 51 山登り

● 52 山登り

● 53 山登り

● 54 山登り

● 55 山登り

● 56 山登り

● 57 山登り

● 58 山登り

● 59 山登り

● 60 山登り

● 61 山登り

● 62 山登り

● 63 山登り

● 64 山登り

● 65 山登り

● 66 山登り

● 67 山登り

● 68 山登り

● 69 山登り

● 70 山登り

● 71 山登り

● 72 山登り

● 73 山登り

● 74 山登り

● 75 山登り

● 76 山登り

● 77 山登り

● 78 山登り

● 79 山登り

● 80 山登り

● 81 山登り

● 82 山登り

● 83 山登り

● 84 山登り

● 85 山登り

● 86 山登り

● 87 山登り

● 88 山登り

● 89 山登り

● 90 山登り

● 91 山登り

● 92 山登り

● 93 山登り

● 94 山登り

● 95 山登り

● 96 山登り

● 97 山登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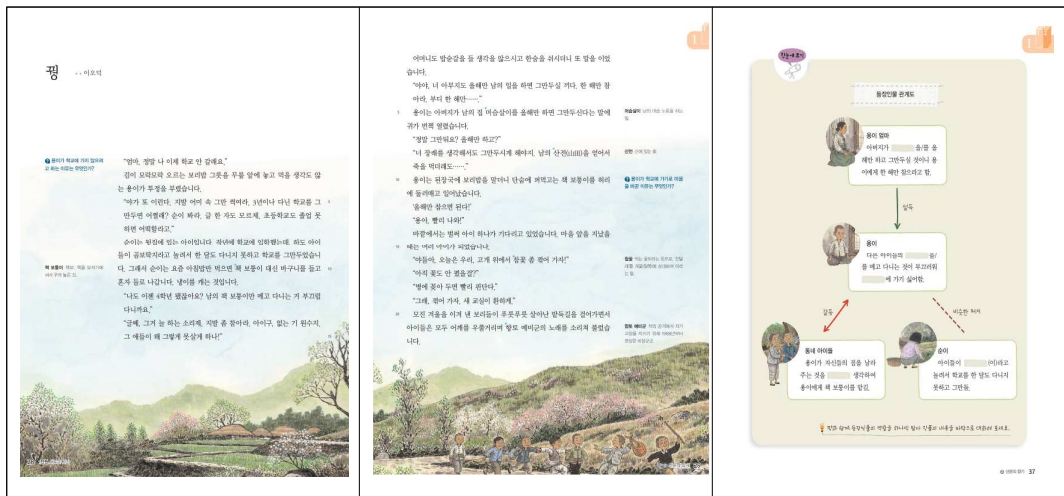
● 98 山登り

● 99 山登り

● 100 山登り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체제의 준비 학습을 살펴보면, 한국은 두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재 글의 제목과 별개로 대단원명에 어울리는 소단원명이 따로 제시된다. 소단원명 아래에는 해당 현대 소설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학습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생각 깨우기’는 학습 목표 내용과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일상 사례와 연결하여 개념을 정립시킨다. ‘읽기 전에’는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질문을 하여 본격적인 학습의 준비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흥미 유발과 원활한 생각을 돕는다. 반면 일본의 준비 학습의 경우 따로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는다. 제재 글 제목 아래 해당 현대 소설의 학습 목표만을 두고 있어, 본 학습 전에 사전 학습이 활발히 행해지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진-7>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본 학습



한국의 본 학습은 본문 학습과 학습 활동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본문 학습의 경우 <사진-7>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수록 현대 소설의 제목과 작가 이름이 상단에 제시되고, 제재 글, 날개 문제, 어휘 풀이, 제재 글의 장면에 해당하는 그림이 전개된다. 날개 질문은 주요 장면마다 등장인물의 심리, 언행의 의미, 등장인물 관계, 주요 소재나 배경 등 해당 장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주요 내용을 질문 형식

으로 배치하여 학습자의 내용 파악과 이해를 돕는다. 제재 글이 끝나면 학습 활동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한 눈에 보기’라 하여 주요 인물 간의 관계도, 줄거리를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사진-8>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본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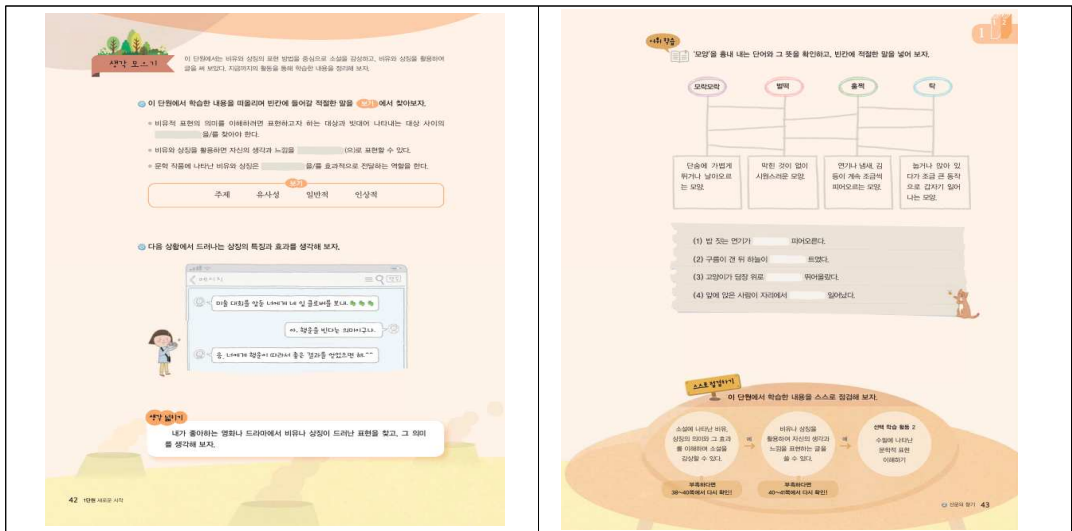


일본의 본 학습은 현대 소설 제목, 제재 글, 어휘 풀이, 한자, 그림이 배치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날개 질문과 같은 중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그림의 경우, 소설 이해를 돕고 흥미를 일으키는 그림이 한국의 경우 거의 장마다 크게 배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소설 한 편당 2~3개 정도의 간단한 그림만 제공하고 있다. 특이점으로는 ‘넓어지는 독서’, ‘작가 정보’, ‘QR코드’가 포함되어 인상적이다. ‘넓어지는 독서’는 본문의 마지막 장 끝부분에 두 권의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책 제목, 작가 이름을 소개한다. 본문의 현대 소설과 소재, 등장인물, 작가, 주제 등 연결성이 있는 책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 통합적 독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진-8>의 하단에 소개하고 있는 두 작품은 본문 수록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중학생들이 등장한다. 소심한 성격을 적극적 성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녀의 모습과, 다양한 모험과 활약상을 보여주는 소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딱딱하거나 도덕적 교훈을 메시지로 담지 않고 또래의 모습을 가볍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가 정보’는 작가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직업, 대표적 작품명,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의 출전 정보가 있다. 외국 작품의 경우 번역가의 이력도 작가 바로 옆에 동일한 정보 구성으로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몇몇 작품의 경우 작가 소개 아래 ‘QR코드’를 두어 작가 인터뷰 영상과 같은 자료를 학습자가 바로 연결하여 볼 수 있게 해두고 있어, 소설 집필의 배경과 의도, 조언 등 작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 소설 제재 글과 학습 활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다루며, 현대 소설 단원의 정리 학습은 다음과 같다.

<사진-9>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정리 학습



한국의 현대 소설 단원 정리 학습은 두 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다. ‘생각 모으기’는 본문 학습과 학습 활동을 토대로 이해한 개념과 의미를 정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개념 정리는 괄호 넣기 정도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미 정리는 학습자가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예를 제공한다. 이어 나오는 ‘생각 넓히기’는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학습자의 경험이나 생활에 적용해보는 활동을 한다. 이는 학습자가 수업 상황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도 학습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어휘 학습’은 딱딱하지 않게 퀴즈 형식과 같은 재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점검하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떠올리며 최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10>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정리 학습

	<p>되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장면 전개에 주목하여 무엇을 포착하였는지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자.</li> <li><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때 학습했던 이야기나 소설을 하나 선정해 줄거리를 발표해 보자.</li> </ul> <p>→ 등장인물과 발단·절정·결말을 고려하며 정리해보자.</p>
--	--

일본의 현대 소설 단원 정리 학습은 페이지를 따로 할애하지 않고 ‘학습 활동’ 끝 부분에 간단히 제시하여 한국의 단원 정리 모습과 대조적이다. 서술형 형태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거나, 학습자의 과거 학습 경험이나 주변 사례 등에 적용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과 체계를 분석하였다. 단원 구성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한국과 일본의 국어과 교육의 시각차가 국어 교과서의 단원 배열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은 다섯 개의 국어과 하위 영역 중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담아 2개의 소단원을 일체감 있게 구성하여, 각 영역이 가진 본질과 특징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일본은 국어 학습을 통한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구체적 능력 추구하여



하나의 대단원에 다양한 영역 내용을 여러 개 배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대단원의 ‘일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은 대단원의 ‘개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단원 체제는, 한국은 도입, 전개, 정리의 내용이 일본에 비해 많은 지면을 할애 하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입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와 내용을 전망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개에서는 소단원 이외에 심화 학습이 가능한 ‘선택 학습’, 공동체 프로젝트 학습인 ‘여럿이 함께하기’를 배치하고 있었다. 정리에서는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생활 독서를 점검할 수 있는 요소도 담고 있었다. 모든 내용은 다양한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흥미와 관심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일본은 도입에서는 목차 확인 정도로 간략히 확인하고, 대단원 정리는 따로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다. 다만, 1년 학습이 종료되는 마지막 단원인 8단원 내용에 3시간의 1년간의 학습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하는 특이점이 있었다.

현대 소설 단원 체제는 준비 학습, 본 학습, 정리 학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대단원 체제와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국은 준비 학습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예측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학습에서는 날개 문제와 같이 중요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을 배치하고 있었다. 정리 학습에서는 두 페이지의 분량에 내용 정리와 함께 생활 적용 활동 등을 담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준비 학습과 정리 학습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학습 목표와 간단한 정리 활동 두 가지를 하고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시각 자료도 한국에 비해 부족하여 교과서 전체의 모습이 경직된 분위기를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국어 교과서는 주제 통합 독서를 가능케 하는 연관도서 소개와 작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 교과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담고 있어 한국 교과서가 활용 요소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 2. 현대 소설 단원 제재<sup>55)</sup>

해당 절은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단원 제재를 분석한다. 양국의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의 작가, 출전, 작품의 배경, 중심인물 등을 살피고,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비교 분석한다.

<표-22> 한국 천재(노미숙)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목록

학년(학기)	단원	제목	작가 (출생 연도)	작품 배경 *(출간일) <sup>56)</sup>	주제	중심 인물
1 (1)	1	꿩	이오덕 (1925년)	1960년대	성장	소년
1 (1)	4	하늘은 맑건만	현덕 (1909년)	1930년대	성장	소년
1 (2)	1	공작 나방	헤르만 헤세 (1877)	*(1911년)	성장	소년
2 (1)	1	동백꽃	김유정 (1908)	1930년대	사랑	소년
2 (2)	1	운수 좋은 날	현진건 (1900)	1920년대	가난	성인
3 (1)	1	연	이청준 (1939)	1970년대	육친애	소년 성인

55)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제재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 ‘문학’ 단원의 본문과 선택학습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 소설 7편을 대상으로 하고, 일본은 ‘읽기’ 영역의 문학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대 소설 9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공작나방’(1911년 발표)과 일본 교과서에서 다루는 루쉰의 ‘고향’(1921년 발표)은 근대 소설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모두 외국 작품으로 한국과 근·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1910년 이후 작품을 현대 소설로 구분하는 시각이 있으며, 중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소설을 근대와 현대로 구분하여 지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모두 현대 소설 제재로 포함하여 분석함을 밝힌다.

3 (2)	1	기억 속의 들꽃	윤홍길 (1942)	1950년대	전쟁	소녀
-------	---	----------	---------------	--------	----	----

한국 천재(노미숙)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단원에 수록된 작품의 수는 총 7편으로, 소단원 본문 글에 ‘뽕’, ‘하늘은 맑건만’, ‘공작 나방’, ‘동백꽃’, ‘기억 속의 들꽃’이 있고, 소단원 선택 학습 글에 ‘운수 좋은 날’, ‘연’이 실려 있다. 작품의 출전은 모두 기성 작품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외국 작품 1편이 포함되어 있다.

작가군의 출생 연대는 187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이며,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 작품 1편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 속 시대 배경은 192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의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수록 소설 중심인물의 연령대는 본문 글에서는 모두 10대의 소년과 소녀로 형성되어 있으며, 선택 학습 글에서는 소년 및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작품의 주제는 다수가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오덕의 ‘뽕’은 1960년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머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던 주인공 소년 용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 문제 상황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상징적 소재인 뽕을 통한 태도 변화가 극적으로 표현되어, 용기를 통해 얻은 성장을 담고 있다. 현덕의 ‘하늘은 맑건만’은 1930년대 어느 도시에 사는 문기라는 주인공 소년이 거스름돈을 잘못 받은 계기로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그리고 있다. 유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야기로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일한 외국 작품인 헤르만 헤세의 ‘공작 나방’은 나비 수집에 열중하던 소년의 이야기로 친구가 가진 귀한 공작 나방을 훔치고, 고백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깨달음과 성숙을 다루고 있다. 성장을 주제로 한 현대 소설은 인간관계 속 내·외적 갈등이나 아직 정립되지 않은 도덕적 기준과 같은 성장기의 어려움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해결의 실마리를 담고 있다.

56) 작품 내 시대 배경을 뚜렷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출간일)로 표기하였음.

성장이라는 주제 이외에도 김유정의 ‘동백꽃’은 1930년대 강원도 농촌을 배경으로 주인공 소년의 순박한 사랑을 토속적이고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소년과 소녀의 대조적인 인물의 성격, 역순행적 구조의 사건 장면 배열, 상징적 소재에 따른 의미 등 소설 속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윤홍길의 ‘기억 속의 들꽃’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어린 소녀가 피란길에 혼자 남겨진 채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온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소녀가 남장을 하는 사연, 전쟁으로 인한 부모의 죽음, 소녀를 대하는 마을 어른들의 비인간성과 끝내 주인공 소녀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는 전쟁의 참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선택 학습의 작품에는 성인 주인공을 내세워 다른 세대의 내면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은 일제 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인력거를 끌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의 이야기로 주인공 김 첨지를 통해 하층민의 가난한 삶을 엿볼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하지만, 아내에 대한 애뜻함을 가진 김 첨지의 행동과 심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비극적 결말을 통해 비참한 당대 현실을 접할 수 있다. 이청준의 ‘연’은 1970년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가난한 형편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을 포기한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연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아들의 갈망을, 연줄을 통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어머니를 형상화하였다.

한국은 중학교 3년간 자신과 비슷한 또래 혹은 기성세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성장, 사랑, 육친애, 전쟁, 가난과 같은 주제를 접하게 된다. 특히 1학년은 성장과 관련된 주제를 가진 작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오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 시대 속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간접 경험은 자신, 타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과서 수록 소설의 아쉬움도 있다. 다수의 작품 배경이 192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로만 집중되어 있으며, 출생 연도가 1940년대 이전의 남성으로 특

정된 작가군의 기성 작품만을 담고 있다. 시대 배경, 작가군, 기성 작품 등의 편중적인 제약으로 소설의 내용도 다양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국어과는 문학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개성 발현, 다양한 체험, 내적 성장 등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문학 작품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불균형적인 제재 글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 소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중 하나는 인간과 세계가 지닌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의식을 통해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될 체험의 범위는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두루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삶의 모습만큼 학습자가 살아가는 동시대 삶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다. 학업, 진로, 산업 변화, 자연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촉발되는 주제를 담은 현대 소설이 국어 교과서에 실려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성장과 관련된 주제도 도덕적 측면 위주의 강조보다는 학습자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23>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목록

학 년	단 원	제목	작가 (출생년도)	작품 배경 *(출간일)	주제	중심 인물
1	1	신순 シンシュン	니시 나오코 西加奈子 (1977)	근래 <sup>57)</sup>	성장	소년
1	4	어른이 되지 못한 동생들에게... 大人になれなかった弟たちに...	요네쿠라 마사카네 米倉齊加年 (1934)	1940년대	전쟁	소년
1	4	별꽃이 내릴 무렵에 星の花が降るころに	안도 미키에 安東みきえ (1953)	근래	성장	소녀
1	8	소년 시절의 추억	헤르만 헤세	*(1911년)	성장	소년

		少年の日の思い出	ヘルマン ヘッセ (1877)			
2	1	아이스 플래닛 アイズプラネット	시이나 마코토 椎名誠 (1944)	근래	넓은 세상	소년
2	4	추석 선물 盆土産	미우라 테즈오 三浦哲郎 (1931)	1960년대	가족애	소년
2	8	달려라 메로스 走れメロス	다자이 오사무 太宰治 (1909)	*(1940년)	신의	성인
3	1	악수 握手	이노우에 히사시 井上ひさし(1934)	1950년대	인류애	성인
3	4	고향 故郷	루쉰 魯迅 (1881)	1910년대	변화 희망	성인

일본 미즈무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단원에 수록된 작품의 수는 총 9편으로, 자국 소설 7편과 외국 작품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출전은 교과서용으로 창작된 작품 ‘신순’, ‘별꽃이 내릴 무렵에’, ‘아이스 플래닛’의 3편과 기성 작품 6편으로 배치되어 있다. 교과서용 작품은 주로 저학년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근래를 배경으로 성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작가군의 출생 연대는 188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로 성별은 여성 작가 2명, 남성 작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은 낯선 내용이기엔 간단히 즐거움을 밝히고 의의를 찾는다.

‘신순’은 주인공 소년인 순타가 경험하는 우정을 주제로 한 성장 이야기이다. 순타는 항상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 여겼던 친구인 신타와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슬프고 억울한 감정까지 가지게 된다. 두 사람은 점차 대화가 사

57) 일본은 교과서용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작품의 배경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현 시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기성 출판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출간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교과서용 작품의 경우 작품 배경을 ‘근래’라 표현하였다.

라지고 서먹한 사이가 된다. 순타는 용기를 내어 싸우더라도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타에게 다가간다. 신타도 친구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예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 ‘별꽃이 내릴 무렵에’는 앞의 신순과 비슷한 소재인 친구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의 성별과 결말이 다르다. 주인공 소녀는 두 명의 친구 사이에서 여러 경험과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나즈미라는 친구는 중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으나 어느 순간 멀어져 화해를 시도해 보았지만, 예상과는 다른 냉담한 반응으로 당혹감을 느낀다. 토베라는 친구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지만, 주인공 소녀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토베에게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혼란한 감정을 느끼고 있던 주인공 소녀는 우연한 기회에 은묵서 나무 이야기를 듣는다. 낡은 잎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잎을 길러내는 은묵서 나무를 통해 과거에 얽매이는 삶보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정신적 성장을 이룬다. ‘신순’과 ‘별꽃이 내릴 무렵에’는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유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각각 화해와 변화라는 이질적 메시지를 담는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문제는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때도 있으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아이스 플래닛’은 넓은 세계를 주제로 한다. 빈둥거리며 집에 있는 외삼촌이 과거 자신이 여행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주인공 소년에게 들려준다. 사람 몸집보다 큰 말을 삼키는 아나콘다, 3m의 메기, 거대한 북극의 아이스 플래닛과 같은 이야기의 내용은 소년이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내용이었기에 외삼촌이 자신을 거짓말로 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외삼촌과 거리를 둔다. 이후 외삼촌은 여행을 떠나고 허황된 이야기라 여겼던 실제 사진을 동봉하여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덧붙여 세계는 아주 크고 다양한 일로 가득 차 있으니, 다양한 지식을 쌓아 큰 세상에 나가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마무리한다.

이렇듯 교과서용으로 창작된 작품은 시대 배경을 근래로 하여 중학교 학습자들이

현재 당면해 있는 고민이나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 세상과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습자의 현실 삶과 유사한 모습을 반영한 소설의 내용은 작품과의 거리감을 줄여주고, 실제 삶에 적용하여 해결의 열쇠로 쓰일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전쟁과 관련한 작품으로는 ‘어른이 되지 못한 동생들에게’와 ‘악수’가 있다. ‘어른이 되지 못한 동생들에게’는 태평양 전쟁 속 남동생의 죽음을 통해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참상과 비극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악수’는 같은 전쟁 속 일본인으로부터 고난을 겪었던 외국인 신부님이 오히려 아동 보호 시설에서 일본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등 원망보다는 평화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 전범국으로써 책무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전쟁에 대한 시선의 접근을 다각화하여 전쟁이라는 소재에서 다양한 주제를 끌어내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작품 두 편을 실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 ‘공작 나방’으로 실려 있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소년 시절의 추억’으로 실려 있으며, 중국 작품인 루쉰의 ‘고향’이 수록되어 있다. 동양 서양의 작품이 균형감 있게 배치되어, 문화와 역사가 다른 이국이지만 인간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공감과 다양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추석 선물’은 1960년대 도시화 근대화 물결 속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냉동식품이 신기한 시절,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추석 연휴 귀향 선물로 냉동 새우튀김을 가져온다. 생경한 새우튀김은 주인공 소년에게는 단순한 음식의 의미가 아닌 흩어져 있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물건으로 독자는 시대 배경의 차이를 느끼며 가족애라는 주제를 느낄 수 있다. ‘달려라 메로스’는 포악한 왕을 암살하려던 사실이 발각돼 잡혀 있는 주인공이 여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친구를 인질로 대신하고 사흘의 시간을 얻어 고난을 헤치며 다녀오는 이야기로 신의를 주제로 담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수록 현대 소설은 배경, 주제, 시각 등 균형감 있는 작품이 선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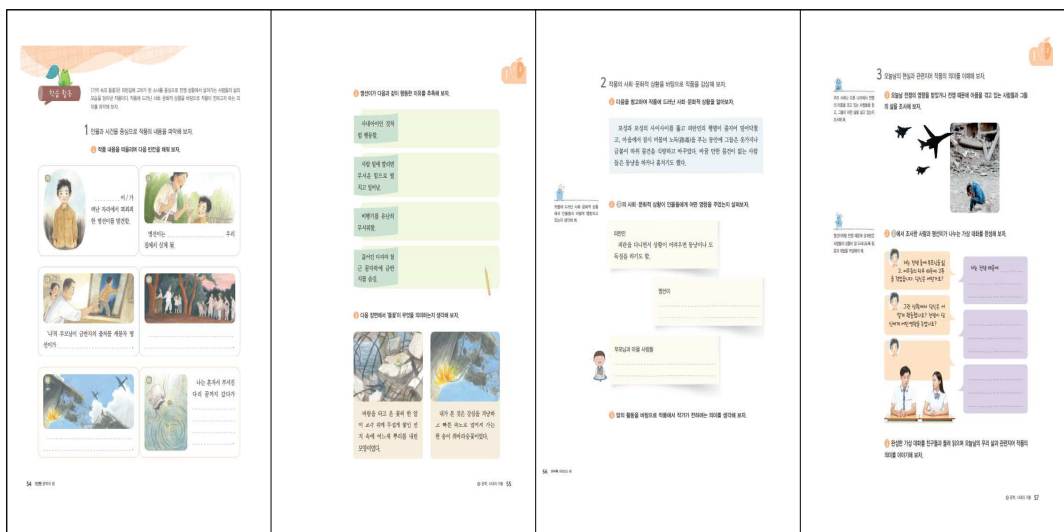


거나 창작되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는 앞서 확인한 한국 교과서 수록 제재 글이 가진 문제점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 학습자의 출생연도는 2007년에서 2009년 전후의 세대이다. 학습자가 당면한 실상의 고민, 드넓은 세상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가 구현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와 제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해당 절은 한국과 일본의 현대 소설 단원의 학습 활동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의 순서는 학습 활동의 분량, 삽화, 학습 활동 질문에 대한 정리 여백 등의 학습 활동의 전반적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의 체제를 살펴본다.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 <실천학습>의 학습 활동 과정을 양국이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내용을 표로 정리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양국의 현대 소설 단원 일부의 학습 활동을 학습 활동 체제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비교 분석하며 한국과 일본의 현대 소설 교육 방법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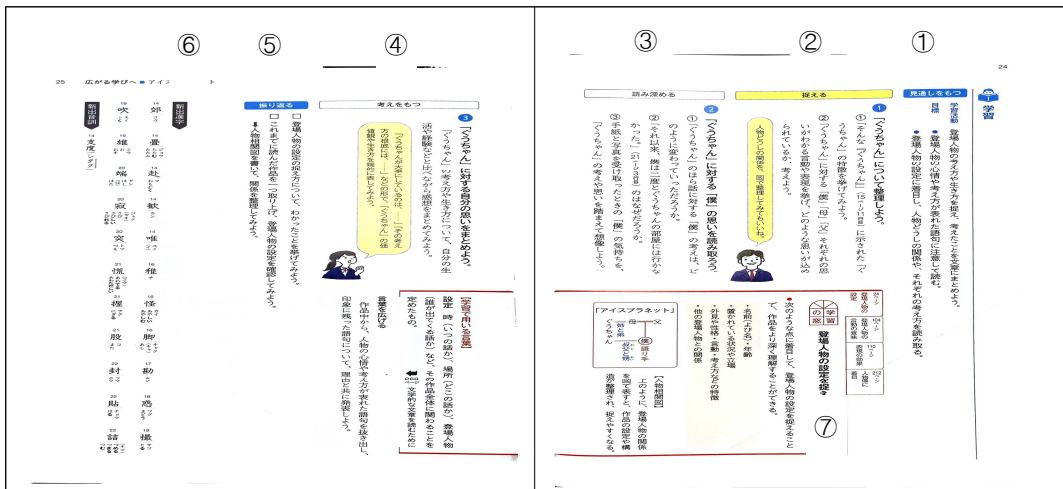
<사진-11> 한국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한국 현대 소설 학습 활동의 지면 분량은 본문 제재 글의 경우 평균 3~4쪽, 선택 학습의 경우 2~3쪽의 분량을 확보하여 활동 내용을 게시한다. 전반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의 경우 본문 현대 소설 장면에서 사용한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활동 질문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어도 소설 장면으로 쉽게 되돌아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 항목 간에 간격도 넓고 활동 내용을 정리할 여백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따로 용지를 마련하지 않고 교과서 내에서 활동 내용을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활동의 순서는 질문 번호를 통해 안내되고 있으며,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 <실천 학습>의 단계적 과정을 보인다. 학습 활동 1번은 <내용 학습>으로 학습한 현대 소설 내용을 소설의 형식 요소나 구조를 이용해 정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학습 활동 2번은 <목표 학습>으로 해당 단원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본 글과 연결하며 학습한다. 학습 활동 3번은 <적용 학습>, <실천 학습>으로 전 단계에서 이해한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로 가져와 수행하는 활동을 한다.

<사진-12> 일본 중학교 국어 교과서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①[전망 갖기]	②[파악하기]	③[깊게 읽기]	④[생각 갖기]	⑤[되돌아보기]	⑥[신출한자]
⑦[학습의 창]					

일본의 현대 소설 학습 활동은 모두 2쪽 분량으로 담겨 있으며, 모든 현대 소설 단원의 학습 활동 형식을 일체화하여 학습자가 학습 활동 전개에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조하고 흥미를 돋우는 그림은 한국에 비해 거의 없는 편이다. 학습 활동의 질문은 모두 서술 형태이지만 내용을 정리할 여백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위한 ‘워크시트’가 교과서부터 따로 준비되어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교과서 본문의 특정 부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한국의 학습 활동에서는 본문을 발췌하여 지문으로 구성해 두고 있으나, 일본의 학습 활동은 페이지와 행 정보만 전달하고 있다.

학습 활동의 순서는 <파악하기>, <깊이읽기>, <생각 갖기>로 형식화 되어 안내되고 있다. <파악하기>, <깊게 읽기>는 <내용 학습·목표 학습>에 해당하며, <생각 갖기>는 <적용 학습·실천 학습>에 해당한다. 일본은 학습 목표가 소설의 형식 요소이기 때문에 내용학습과 목표학습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현대 소설의 지식 요소는 학습 활동 하단 부분에 ‘학습의 창’을 두어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한다. ‘학습의 창’은 교과서 부록 부분에 다시 한곳에 모아 리플릿 형태로 만들어 학습자가 언제든지 한눈에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24> 한국 현대 소설 단원 체제와 내용

학년	소설 제목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실천 학습
1	평	인물 행동 살피기	문학 표현 (비유와 상징) 의미와 효과 이해	문학적 표현 활용 (친구 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넷 공유한 후 댓글 남기기)

1	하늘은 맑건만	인물 중심으로 내용 정리	갈등을 바탕으로 작품 이해	인간의 보편적 정서 이해 (주인공에게 조언하는 글쓰기, 갈등의 경험 떠올려 대화하기)
1	공작 나방	인물 행동과 심리 변화 정리	성장 과정 파악	자신의 삶 성찰하기 (실수나 후회의 경험 떠올리기, 주변 사례 찾고 공유하기)
2	동백꽃	주요 사건 중심으로 내용 정리	서술자 관점에 주목	서술자 바꾸어 장면 창작 (모둠활동)
2	운수 좋은 날	즐거리를 통해 행동 심리 정리	문학의 표현 (반어) 의미와 효과 이해	문학적 표현 활용 (자신의 하루를 개성적으로 일기로 표현하기)
3	연	인물 행동과 심리 정리	심미적 체험으로 감상	심미적 체험 적용 (인물 심정 상상해 일기 쓰고 발표)
3	기억 속의 들꽃	인물, 사건 중심 정리	사회·문화적 배경 바탕으로 감상	오늘날과 관련짓기 (오늘날 전쟁 상황과 삶 조사, 소설 주인공과의 가상 대화)

한국의 <내용학습>은 작품의 줄거리 정리나 사건을 정리하며 인물의 행동, 인물 심리와 성격, 특정 소재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 파악을 한다. 학습자가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림, 표, 등의 시각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유추하기 쉽다. 일부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채워 두고 학습자가 손쉽게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하고 있어, 전반적인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파악하도록 한다. 그 이유로는 앞서 본문 학습의 ‘날개 질문’과 ‘한 눈에 보기’에서 작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내용학습>은 <목

표학습>의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다른 학습에 비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표-25> 한국 현대 소설 단원 학습활동 <목표학습> 내용

<p>&lt;‘뺨’ 학습 활동&gt;</p> <p>2.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해 보자.</p> <p>(1) 작품에서 ‘뺨’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p> <p>(2) 작품의 결말에서 용이를 ‘뺨’에 비유한 이유를 말해 보자.</p>
<p>용이는 훌쩍 한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 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뺨이 소리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p>
<p>(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 보자.</p> <p>(4) 작품에 나타난 문학적 표현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자.</p>
<p>&lt;‘기억 속의 들꽃’ 학습 활동&gt;</p> <p>2.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자.</p> <p>(1) 다음을 참고하여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아보자.</p>
<p>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피란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路毒)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붙이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p>
<p>(2) (1)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자.</p>
<p>피란민</p> <p>피란을 다니면서 상황이 어려우면 동냥이나 도둑질을 하기도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명선이          -----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       </div>
<p>(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p>

한국의 <목표 학습>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 문학표현(비유와 상징), 2. 갈등, 3. 성장, 4. 서술자, 5. 문학표현(반어), 6. 심미적 체험, 7.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가진 의미와 효과 등을 이해하며 작품을 더욱 심화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작품 속 특정 소재나, 일부 장면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한다. 문학 작품이 가진 다양한 요소와 맥락을 이용해 내용 정리를 하며 지나칠 수 있었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최종적으로 주제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깊이 있는 감상을 한다.

‘뽕’은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 활동 2번 <목표 학습>에서는 학습자에게 소설의 주요 소재인 뽕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소설의 주제를 찾고, 작품에서 주제를 전달할 때 문학적 표현이 가지는 효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은 4개의 단계적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2(1)과 같이 학습자가 바로 찾아내기 어려운 질문은 다른 학습자와의 의견을 모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개인 활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에 필요한 지문은 미리 발췌하여 질문과 함께 담아내고 있다.

‘기억 속의 들꽃’은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두고 있다. 2(1)의 질문에서 전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소재

와 인물의 행동을 작품의 일부에서 찾아보고 사회·문화적 배경의 개념을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2(2)의 질문을 통해 사회·문화적 배경이 사람들의 행동과 심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3(3)의 작가의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도록 이끈다.

<표-26> 한국 현대 소설 단원 학습활동 <적용학습·실천학습> 내용

<p>&lt;‘뽕’ 학습 활동&gt;</p> <p>3.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p> <p>(1) 소개하고 싶은 친구를 정하고, 그 친구의 인상이나 특징을 떠올려 보자.</p> <p>(2) (1)에서 떠올린 내용을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내 친구 수아는 나에게 고민이 생기면 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준다.</p> <p>-----</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수아는 생수이다. 고민이 있을 때 수아의 조언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진다.</p> <p>-----</p> </div> <p>(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 학급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공유해 보자.</p> <p>(4) 친구들의 글을 읽고 비유나 상징을 잘 활용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보자.</p>
<p>&lt;‘기억 속의 들꽃’ 학습 활동&gt;</p> <p>3.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해 보자.</p> <p>(1) 오늘날 전쟁의 영향을 받았거나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조사해 보자.</p> <p>(2) (1)에서 조사한 사람과 명선이가 나누는 가상 대화를 완성해 보자.</p>

▶ 저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저는 전쟁 때문에\_\_\_\_\_

▶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전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_\_\_\_\_

(3) 완성한 가상 대화를 친구들과 돌려 읽으며 오늘날의 우리 삶과 관련지어 작품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자.

한국의 <적용학습>,<실천학습>은 전 단계에서 이해한 학습 목표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에서와 같이 ‘문학적 표현 활용’, ‘서술자 바꾸어 장면 창작’ 등과 같은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질 활용에서부터 ‘인간의 보편적 정서 이해’, ‘자신의 삶 성찰하기’, ‘심미적 체험 적용’과 등과 같은 학습자 내면화를 위한 활용, ‘오늘날과 관련짓기’와 같은 현실 적용과 같은 다양한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현대 소설을 ‘문학’ 영역으로 분리해서 다루고 있지만, 언어활동 영역에서 수행하는 ‘소개하기’, ‘조사하기’ 등을 활용하여 문학 체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모듈활동을 하며 다른 학습자들과 다양한 생각을 교환·공유하기도 하고,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물리적 학습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문학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한다.

‘평’은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써 보는 활동을 한다. 활동은 3(1)에서 대상 정하기,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기, 3(2)에서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체적 표현하기, 3(3)에서 글 완성하고 인터넷 게시판 올려 공유하기, 3(4) 친구들과 서로 의견 댓글 달기의 단계로 소개하는 글쓰기의 순서와 절차를 밝혀주고, 학습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예를 제공하여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기억 속의 들꽃’은 오늘날의 현실과 작품을 연계하는 활동을 한다. 3(1)에서는 오



늘날의 전쟁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한다. 문학 작품을 벗어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의 삶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는데, 이는 다른 교과 과목과 연계하여 수업확장을 이룰 수 있어 학습자에게 교과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2)에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작품의 중심인물과의 가상 대화를 완성한다. 소설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전쟁의 참상과 비극의 모습을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에 대처하는 행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3(3)에서는 다른 학습자와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과 작품의 의미를 연결하는 능력을 활성화 시킨다.

<표-27> 일본 현대 소설 단원 체제와 내용

학년	소설 제목	<내용학습·목표학습>		<적용학습·실천학습>
		파악하기	깊게 읽기	생각 갖기
1	신순	등장인물, 장면 전개 (처음 감상 확인, 교과서 빈 부분 정리)	장면 전개 속 인물 관계 변화 파악	감상 교류 (경험 연결하여 감상문, 전후 감상 변화 발표)
1	어른이 되지 못한 동생들에게	묘사를 바탕으로 인물 심경 파악	시대 배경 고려 제목 의미 파악	그룹 낭독회
1	별꽃이 내릴 무렵에	인물 중심 장면 확인	장면과 묘사 연결	인상적 장면과 묘사에 대해 모둠 활동
1	소년 시절의 추억	전개 파악 전체 개요 정리	인물 성격 심경 변화	시점 변형 발표
2	아이스 플래닛	인물 특징 인물 언동	인물 정서 사고방식	자기 생각 경험 비교

2	추석 선물	작품 구성 파악	인물 성격 인물 심리	작품 인상 근거 서술
2	달려라 메로스	작품 설정, 구성 파악	인물 인상 변화	소설 매력에 대해 그룹 발표
3	약수	장면 전개 특정 효과	인물 언동 심정 이해	인물 가치관 정리 발표
3	고향	인물 장면 구조 확인	인물 변화 의미 파악	비평 활동

<표-28> 일본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 내용<sup>58)</sup>

<‘신순’ 학습활동 >

[파악하기]

❶ 작품의 전체상을 파악하자.

①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감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② 등장인물이나 장면의 전개를 확인하자.

·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누가 말하고 있는가?

· 한 줄 비어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각각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자.

\* 「누가(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하는(어떻게 되는) 장면」 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깊이 읽기]

❷ 장면의 전개에 의해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정리하자.

① 「순타」와 「신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표현을 장면마다 표로 정리해보자.

② ①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갔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생각 갖기]

❸ 깊이 읽은 감상을 교류하자.

자신에게도 같은 경험이 없는지 등을 생각하여, 깊이 읽은 후의 감상을 200자 정도로 정리하자. 처음 소감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소감이 바뀌었는지 발표하자.

<‘아이스플래닛’ 학습활동 >

[파악하기]

❶ 「구우짱」에 대해 정리해보자.

① 「그런 『구우짱』」(15페이지)에 나타난 「구우짱」의 특징을 찾아보자.

② 「구우짱」에 대한 「나」「엄마」「아빠」의 각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언동과 표현을 찾고,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보자.

\*인물끼리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해 봐도 좋아요.

[깊이 읽기]

❷ 「구우짱」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읽어내 보자.

① 「구우짱」의 허풍이야기에 대해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해갔을까?

②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구우짱의 방에 가지 않았다.」(21페이지 3행)의 이유는 무엇일까?

③ 편지와 사진을 받았을 때의 「나」의 기분을 「구우짱」의 사고나 생각을 포함하여 상상해보자.

[생각 갖기]

❸ 「구우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자.

「구우짱」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대해, 자신의 생활이나 경험 등과 비교하며 감상을 정리해보자.

\* 「구우짱이 중요시하는 것은, ...」 「그런 사고방식의 이유는,.... ...」 등의 형식으로, 「구우짱」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단적으로 나타내보자.

<‘고향’ 학습활동 >

[파악하기]

❶ 작품의 설정을 파악하자.

① 현재의 장면과 ‘나’의 회상 장면을 확인하자. 또, ‘나’와 다른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인물간의 관계나 인물이 작품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인물 상관도 등을 사용하여 나타내 보자.

[깊이 읽기]

② 장면이나 등장인물의 설정에 주목하여 읽자.

① 회상 장면과 현재 장면을 비교해 묘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자.

· 고향의 모습 · 룬투 · 양 아주머니

② ‘룬투’와 재회한 장면에서 ‘나’가 느꼈던 ‘슬퍼해야 할 두꺼운 벽’ (109페이지 18행)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③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품고 있는 ‘희망’이나, 바라는 사회란 어떤 것인가. ‘나’와 ‘룬투’, ‘홍얼’과 ‘웨이성’의 관계 등을 근거로 파악하자. 또, ‘나’의 사고방식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의논해보자.

[생각 갖기]

③ 작품을 비평해보자.

깊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지닌 특징이나 가치에 대해 비평해 보자. 하단의 「학습의 창」 등을 참고하여, 관점을 결정해서 정리해보자.

58)

[捉える]

① 作品の全体像をとらえよう。

① 作品を初めて読んだときの感想を、簡単にまとめておこう。

② 登場人物や場面の展開を確かめよう。

· 登場人物はだれか。だれが語っているか。

· 一行空いている部分に注目して、それぞれの内容をおおまかにとらえよう。

\* 「だれが (だれとだれが) どうする (どうなった) 場面」といったように、簡単にまとめてみよう。

[読み深める]

② 場面の展開に沿って二人の関係の変化を整理しよう。

① 「シュンタ」と「シンタ」の関係が読み取れる表現を,場面ごとに表にまとめよう。

② ①でまとめたことをもとに、二人の関係がどう変化していったのか話し合ってみよう。

[考えを持つ]

- ③ 読み深めた感想を交流しよう。

自分にも同じような経験がないかなどを考え、読み深めた後の感想を二百字程度でまとめよう。最初の感想と比べながら、どのように感想が変わったか、発表しよう。

[捉える]

- ① 「ぐうちゃん」について整理してみよう。

① 「そんな『ぐうちゃん』（15ページ11行目）に示された「ぐうちゃん」の特徴を挙げてみよう。

② 「ぐうちゃん」に対する「私」「母」「父」それぞれの思いがわかる言動と表現を挙げ、どのような思いが込められているのか、考えよう。

\*人物どうしの関係を図で整理してみてもいいね。

[読み深める]

- ② 「ぐうちゃん」に対する「僕」の思いを読み取ろう。

① 「ぐうちゃん」のほら話に対する「僕」の考えは、どのように変わっていったらだろうか。

② 「それ以来、僕は二度とぐうちゃんの部屋には行かなかった。」（21ページ3行目）のはなぜだろうか。

③ 手紙と写真を受け取ったときの「僕」の気持ちを、「ぐうちゃん」の考えや思いを踏まえ想像しよう。

[考えを持つ]

- ③ 「ぐうちゃん」に対する自分の考えをまとめよう。

「ぐうちゃん」の考え方や生き方について、自分の生活や経験などと比べながら感想をまとめてみよう。

\*「ぐうちゃんが大事にしているのは、…」 「その考え方の根底には、…」などの形で、「ぐうちゃん」の価値観や生き方を端的に示してみよう。

[捉える]

- ① 作品の設定を捉えよう。

①現在の場面と「私」の回想の場面を確認しよう。また、「私」と他の登場人物との関係を整理してみよう。

\*人物どうしの関係や、人物が作品の中で果たす役割を、人物相関図などを使って表してみよう。

일본의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의 <내용학습·목표학습>은 [과약하기]와 [깊이 읽기]부분이다. 묘사를 통해 드러난 인물 성격, 심리 변화, 인물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물을 둘러싼 맥락을 더해 장면 과약, 구성과 설정 과약을 한다. 현대 소설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통해 정확하게 작품의 내용을 과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순’의 <내용학습·목표학습>은 ❶에서 처음 작품을 읽었을 때의 감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등장인물과 서술자를 확인하고, 장면의 내용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한다. ❷에서 앞서 정리한 인물들을 연결하여 인물 관계의 변화를 다른 학습자와 서로 이야기하며 살핀다. 앞서 과약한 바와 같이 일본의 현대 소설 단원의 학습 목표 내용은 현대 소설 구성 요소이므로 <내용학습·목표학습>에서는 작품 내용 정리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읽기심어]

❷ 장면や登場人物の設定に着目して読み取ろう。

①回想の場面と現在の場面を比べ、描写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るのか、それがわかる部分を抜き出そう。

・故郷の様子 ・ルントウ ・ヤンおばさん

②「ルントウ」と再会した場面で「私」が感じた「悲しむべき厚い壁」(109ページ18行目)とは何か、考えよう。

③最後の場面で「私」が抱く「希望」や、望む社会とはどのようなものか。「私」と「ルントウ」、「ホンル」と「シュエション」の関係などを踏まえて捉えよう。また、「私」の考え方について自分はどう考えるか話し合おう。

[考えを持つ]

❸ 作品を批評してみよう。

読み深めたことを踏まえ、この作品のもつ特徴や価値について批評してみよう。下段の「学習の窓」などを参考に、観点を決めてまとめてみよう。

1학년 시기에 학습하는 ‘신순’에서는 작품에서 드러내 보이는 내용 위주로 파악한다면, 2학년 시기에 학습하는 ‘아이스 플래닛’의 <내용학습·목표학습>에서는 ②에서처럼 작품에서 직접 드러내 보이지 않는 인물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을 파악하고 상상한다. 3학년 시기에 학습하는 ‘고향’의 <내용학습·목표학습>에서는 인물이 가지는 사고방식을 포함해 사회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인물이 지닌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지 학습자 자신의 생각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적용 학습·실천 학습>은 <생각 갖기>부분이다. 학습 과정에서 얻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발표하는 활동을 중요시한다. 현대 소설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한국과 달리 감상 발표, 낭독회, 모듬 발표 등 언어활동으로 자신이 해석하고 획득한 내용의 전달력 강화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류’ 활동을 자주 언급하는 데, 자신의 생각 전달과 함께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신순’의 <적용 학습·실천 학습>을 보면, 작품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와 학습을 통해 달라진 감상을 비교하며 200자 정도의 글을 쓰고 발표하는 활동을 한다. ‘읽기’ 영역에 문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전·중·후의 언어활동에 대한 조정 과정을 학습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아이스 플래닛’과 ‘고향’의 <적용 학습·실천 학습>에서도 드러난다. ‘아이스 플래닛’에서는 특정 인물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대한 판단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정리하는 활동을 하고, ‘고향’에서는 작품의 특징이나 가치를 판단하는 비평 활동을 한다. 인물의 가치관, 생활 방식, 작품의 특징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한국의 학습 활동과 비슷하나, 한국은 이를 발견하여 학습자 삶에 효용적 가치로 내면화하려는 방향으로 <적용 학습·실천 학습>을 구성하고 있다면, 일본은 학습자의 경험과 비교하여 판단의 결과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를 교류하기 위해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중시한다.

한국과 일본의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의 비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양국의 학

습 활동 체제는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 <실천학습>의 순서로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한국의 학습 활동은 <내용학습>-<목표학습>-<적용학습·실천학습>의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 <내용학습>은 다음 학습으로 넘어 가기 위해 학습자가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간략한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학습의 목표가 작품 내용 파악이 아니며, 앞서 본문 학습의 ‘날개 질문’과 ‘한 눈의 보기’ 부분을 통해 학습자가 전반적 소설 내용 파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내용학습·목표학습>-<적용학습·실천학습>의 순서로 보이고 있었다. 일본의 학습 목표는 작품의 정확한 내용 파악이 주요 학습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학습이 곧 목표 학습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한국과 대조적으로 소설 내용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인물의 언동의 의미와 의도 파악에 초점을 두는데 1학년 시기에는 소설의 묘사를 통해 보이는 내용 파악을, 2학년 시기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을, 3학년 시기에는 인물이 가진 가치관과 사회관을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양국 학습 활동의 차이는 <적용학습·실천학습>으로 가면서 눈에 띈다. 한국은 문학의 효용적 가치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문학이 가진 특성, 문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면화, 문학을 통해 현실 바라보기 등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언어활동의 ‘조사하기’, ‘소개하기’ 등을 활용하여 풍부한 활동으로 제공하였다. 반면 일본의 <적용학습·실천학습>은 현대 소설 작품의 내용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미와 의도, 가치관, 사회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자신의 견해를 모둠활동, 발표 등을 통해 교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언어 표현과 이해에 초점을 맞춰 전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었다.



## V. 결론

본 논문은 현대 소설이 학습자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국 현대 소설 교육의 현황과 위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분석 범위를 한국과 환경이 비슷한 국가인 일본의 현대 소설 교육까지 확장함으로써 한국 소설 교육의 방향성 확인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수록 단원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구체적인 현대 소설 교육 방법을 확인하였다.

II장에서는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중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학습자의 삶을 위한 교육에 공통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 학습자가 살아갈 미래의 삶에 대해 한국은 ‘개척의 대상’으로, 일본은 ‘어려운 도전의 시대(厳しい挑戦の時代)’로 바라보고 있었다. 양국은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특정해두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인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살아가는 힘(生きる力)’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식 및 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 ‘배움을 향한 힘, 인간성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 전체의 기본 틀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교육 목표와 방향 아래 학습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권장하여 한국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일본은 ‘종합적 학습시간’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과 중 국어과는 교과 시간 배당 기준을 통해 핵심 교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II장에서는 한·일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학습자 삶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국어과 교육 목표, 문학 영역 구성, 문학 영역 성취기준 비교 분석을 통해 국어 교육에 대한 시각과, 문학 교육 방법이 서로 상이

함을 확인하였다. 국어과 교육 목표에서, 한국은 국어과 각 영역의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학습자의 개성 발현과 더불어 주체적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학은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향유에 도움 되는 지식’을 강조하며, 정확하게 이해하되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 표현과 소통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일본은 학습자가 낯설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를 표현하는 자질을 배양하는 것은 역점으로 두고 있었다. ‘사회생활’과 ‘서로 전하는 힘(소통)’을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까지 언어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문학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국어과 영역 구성에서, 한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총 다섯 개의 영역으로 독립적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본질적 탐구를 추구하고 있었다. 일본은 ‘지식 및 기능’의 능력을 위해 ‘말, 정보, 언어문화’를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고,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능력을 위해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를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문학을 ‘읽기’ 영역 안에 포함시키며, 문학이 가진 특성적 접근보다 언어활동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강했다. 문학의 성취기준에서, 한국은 문학이 가진 심미적 본질에서 문학을 이루는 형식 요소, 감상 방법,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학의 맥락을 중심으로 수용과 생산의 활동을 더해 구성하고 있었다. 일본은 구조와 내용 파악에서 조사와 해석, 생각 형성과 공유로 이어지는 기능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의 형식 요소를 학년 별로 배치해, 정확한 이해와 사고의 과정을 거쳐 원활한 전달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한·일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현대 소설 교육의 구체적 모습을 비교하였다. ‘단원 구성과 체제’, ‘현대 소설 제재’,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을 분석하며 현대 소설 교육의 방법차를 확인하였다. ‘단원 구성과 체제’에서, 한국은 하나의 대단원 안에 두 개의 소단원만을 담아 국어과 각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화 학습과 공동체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응집력 있는 구성을 보였다. 현대 소설 단원의 경우, 준비 학습에서는 배경 지

식과 경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본 학습에서는 이해를 돕는 날개 질문과 한 눈에 보기와 같은 내용을, 정리 학습에서는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다양한 시각적 그림, 사진과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은 하나의 대단원에 ‘지식 및 기능’,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하위 영역 내용을 여러 개 구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단원은 단원 번호를 가진 단원 이외에 ‘정보’와 ‘독서’ 단원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대단원 종료 시 마무리 기능을 가진 정리부분이 없었지만, 한 학년을 종료하는 8단원에서 ‘1년의 학습 되돌아보기’를 실시하고 있었다. 현대 소설 단원의 경우, 준비 학습, 본 학습, 정리 학습의 활동 내용과 시각 자료가 한국에 비해 활동과 내용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 소설 제재’에서, 양국은 모두 성장기 학습자를 위한 성장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담고 있었다. 한국은 성장의 주제가 도덕적 내용을 담거나, 작품 시대 배경이 학습자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거의 모습을 다수 담고 있어 현 학습자의 실제적 삶의 고민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교과서를 위한 작품을 따로 제작하여 학습자의 실제 모습을 재연하고 현실적 고민을 다루고 있었으며,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존재하여 참고점이 되었다. ‘현대 소설 단원 학습 활동’에서, 한국은 평균 3~4쪽의 넓은 지면을 할애하여 <내용학습>, <목표학습>, <적용학습·실천학습>의 단계를 밟으며 학습자 경험이나 생활과 연계하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현대 소설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효용적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현대 소설의 형식 요소를 학습의 목표로 삼고 있어서 내용학습과 목표학습이 분리되지 않고, <내용학습·목표학습>, <적용학습·실천학습>의 순서를 보였다. 다양한 체험보다 학습자가 작품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관점을 형성하여 타인이나 집단에 공유 소통하는 활동이 많았다.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현대 소설 교육 방법을 추적해 본 결과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인접성이나 사회 문화적 공통적 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현대 소설을 교육 방법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문학을 독자적 영역으로 나누

는 한국은 현대 소설의 가치를 학습자의 내면의 성장과 가치관, 세계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문학을 읽기 영역으로 포함하여 보는 일본은 현대 소설의 가치를 학습자의 해석 능력, 판단력, 견해 생성, 표현과 소통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언어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양국은 현대 소설이 지닌 가치를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었지만, 자국 학습자의 실질적 삶을 위하여 최선의 교육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본 논문은 현상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끌어 미흡한 점이 많으나, 다른 훌륭한 후행 저자들의 연구를 기대하며 내용을 마무리한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 <한국>

교육부(2015),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3])

교육부(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별책5])

교육과학 기술부(2009), 『중학교 교육과정』

노미숙 외(2018), 『국어 1-1』, 천재교육.

노미숙 외(2018), 『국어 1-2』, 천재교육.

노미숙 외(2018), 『국어 2-1』, 천재교육.

노미숙 외(2018), 『국어 2-2』, 천재교육.

노미숙 외(2018), 『국어 3-1』, 천재교육.

노미숙 외(2018), 『국어 3-2』, 천재교육.

#### <일본>

문부과학성(2017),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

문부과학성(2017),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총칙 편』

문부과학성(2017),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국어 편』

미즈무라도서(2021), 『국어 1』 .

미즈무라도서(2021), 『국어 2』 .

미즈무라도서(2021), 『국어 3』 .

## 2. 단행본

- 구인환 등(2012), 『문학교육론』, 삼지원  
 윤영옥(2007), 『현대 소설의 문학 교육적 해석』, 역락  
 최미숙 등(2016),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아카데미

## 3. 논문

- 김영옥(2007), 「한·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의 주제 의식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우태곤(2008), 「한·일 중학교 국어과 듣기·말하기 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노아름(2018), 「한·일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중학교 시 단원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치범(2015),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내용 성취기준의 서술어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학』, 48호.  
 방희경(2008), 「한국과 일본의 제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유순(2009), 「한·일 중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 -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일환(2017),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영역과 교육학」, 『비교 교육 연구』, 27호  
 주정옥(2008), 「한·일 중학교 고전문학 교육 비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현희(2014), 「한·일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비문학 지문의 제재 고찰」,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세미(2004), 「한국과 일본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 -국어 지식 영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4. 참고 사이트

##### <한국>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www.ncic.go.kr>

천재교육 출판사 <https://www.chunjae.co.kr>

##### <일본>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

도쿄도 교육위원회 누리집 <https://www.kyoiku.metro.tokyo.lg.jp>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 학습지도요령 일람.

<https://erid.nier.go.jp/guideline.html>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ucation of Modern

## Novel i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Middle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s

Kim Suyoung

Advisor : Prof. Kim Hye-young

Major in Korea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Chosun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current situation and status of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by comparing and studying modern novel education in middle schools in Korea and Japan. We live with constant challenges in various phenomena in a transformative society. The problem to be solved is directly related to our daily lives, and the subject that leads the life is me and all members of society. Knowing the 'life' of me and the various people surrounding me means gaining great strength to live in the world.

Modern novels are aggregates of various human lives. We can look into the appearance of life anytime, anywhere, establish a life by insight into humans and society, and derive new methods and alternatives beyond existing



limitations. In modern novel education,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provide access to the values of modern novels, an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efforts for the best education are always made to reflect national values. Comparison of education between countries with similar backgrounds can derive effective results in occupying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modern novel education in Korea were confirmed by comparing the curriculum of Korea and Japan with the educational methods of modern novels showing internal and external similarities in East Asia.

Chapter II compares and analyzes the general curriculum of middle schools currently applied in Korea and Japan. Korea and Japan set the background for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to foster the ability to cope with social chang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iculum of the two countries commonly pays attention to the 'life' of learners who will live in the unknown era.

Chapter III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iculum of the National language in middle schools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language curriculum in both countrie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 on literature educatio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Korea was aimed at education that divided literature, a sub-area of National language, into a single area to help learners enjoy and internalize the essential values of literature.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literature also focused on leading learners' growth through acceptance and production activities, including the nature and elements of literature, methods of appreciation, and attitude of reflection. Japanese National language education saw literature as part of

language activities for thinking, judgment, and expression, and included it in the reading area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necessary for social life throug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cesses using literary elements. To this end, the achievement criteria of literature divided the analysis process step by step and placed the form elements of the novel for analysis so that learners can develop the qualities of understanding,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Chapter IV compares the appearance of modern novel education in middle school National language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To this end, the composition and system of National language textbook units, sanctions on modern novel units, and learning activities of modern novel units were analyz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views on literature education was also reflected in modern novel education. In the case of Korea, only two sub-units were composed in one unit to intensively learn the sub-units of the National language department. Even at the end of the two small units of learning, various experiences such as activities for in-depth learning and community project learning were provided, and the introduction and organization of large units were faithfully organized. In the case of Japan, several areas were included in one unit so that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language department could be accessed in various ways, and in the case of information and reading, it was also composed of separate units. As the large volume contained various contents, there was no in-depth learning or activities as in Korea, and the introduction was also simplified. In particular, the theorem showed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National language learning contents of a grade in the last unit, not by unit. The modern novel unit system was also composed of preparatory and organized learning in Japan compared to Korea.

The sanctions on modern novels were better embodied by Japan than Korea, and could be a reference point for the sanctions on modern Korean novels, such as various perspectives on topics and modern novels for textbooks. The learning activities of the modern novel unit in Korea presented activities that connect with various experiences using various media, helping to form learners' inner growth, values, and worldviews. On the other hand, the learning activities of modern novel units in Japan presented activitie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exchange the analyzed contents, helping learners to increase their judgment, opinion formation,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skills.

As a result of comparing modern novel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the two countries were making their best efforts to help learners' lives through modern novel education. However, the goals and methods of modern novel education were different by approaching the values gained from modern novel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rough these difference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current situation and status of modern Korean novel education.

\* Keyword: Korea-Japan, modern novels, curriculum, educational goals, unit system, the material of modern novels , learning activities